



도서관은 책과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좋은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이러한 도서관은
시민들의 문화 놀이터로서 이용자들이 새로운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채로운 행사로
가득한 문화의 달, 도서관 축제의 현장을 따라가 봅니다.



월간 <오늘의 도서관>은 누리집(www.nl.go.kr)에서도 보실 수 있으며,
데이지(DAISY, 디지털음성도서) 서비스는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 및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vol.
316
2023. 10

오늘의 도서관



오늘의 도서관

vol.
316
2023. 10



표지 일러스트
일러스트레이터 JINZAKA

도서관에 가면 다양한 문화행사가 이용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이 반겨주는 가을에는 도서관으로 가볍게 산책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도서관> 10월호에서는 함께 소통하고 즐기는 도서관 축제를 만나봅니다.

월간 <오늘의 도서관> 제33권 제8호 통권 316호
발행일 2023년 9월 30일 발간등록번호 11-1371029-000167-06
발행인 국립중앙도서관장 발행처 국립중앙도서관
편집위원 김성훈, 손효림, 이은경, 조선희, 배명희
편집 이정화 todaylibrary@korea.kr
주소 065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전화 02-590-6331 팩스 02-590-6329 누리집 www.nl.go.kr
제호 강병인 디자인·제작 부운디자인

외부 필자에 의해 제공된 콘텐츠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을 열다



04 오늘의 칼럼
함께 만드는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06 오늘 나의 도서관은
도서관,
지역의 문화사랑방

10 일상을 펼치다
가을에 만나는 도서관 축제
국립중앙도서관
78주년 개관 기념행사
제60회 전국도서관대회·전시회

도서관을 만나다



14 이달의 전시
'이야기, 무대에 오르다'
도서와 아카이브로 보는 공연예술
국립중앙도서관-국립중앙극장
공동기획전

18 문헌의 가치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통일 분류표와
목록규칙 초판본,
《조선십진분류표》와 《조선동서편목규칙》

22 꿈을 이루는 도서관
문화와 미래를 이끄는 도서관
'포항시립포은중앙도서관'

26 도서관 여행자
새로움과 혁신의 아이콘
'일본 이시카와현립도서관'

30 도서관 트렌드
자연과 어우러지는
친환경도서관

공감을 펼치다



34 북데이터
시가 주는 언어의 울림
한국 시 관련 분야 대출 동향

36 오늘의 만남
컬러를 통해
나의 개성과 강점 찾기
퍼스널 이미지 브랜딩 전문가 팽정은

40 K-인문학
'무방'
초능력자들의 휴머니즘

44 고전 드라마
주입된 유토피아,
인간성의 디스토피아
올더스 헉슬리 《멋진 신세계》

48 오감독서
각인처럼 새겨진 기억과
체취를 쫓는 것
강지영 《페로몬 부티크》

함께 나누다



52 국립중앙도서관 소식

56 국내외 도서관 소식

58 내 마음의 문장들
2023년 여덟 번째 필사
윤동주 <코스모스>

59 오늘의 사진관
완연한 가을,
나만의 도서관은 어디인가요?

오늘의 도서관 10월호를 SNS에서 만나보세요.

블로그 blog.naver.com/dibrary1004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nationallibraryofkorea
페이스북 www.facebook.com/nationallibrary.of.korea
유튜브 www.youtube.com/nationallibraryofkorea



<오늘의 도서관>은 '공공누리'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일러스트레이션 및 사진은 제외.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제도란 공공기관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용허락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게 공개하고 활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www.kogt.or.kr

함께 만드는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글 박승진 한국도서관협회장,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도서관은 시민들의 문화 놀이터

도서관은 시민의 풍요로운 삶에 기반이 되는 문화 프로그램을 능동적으로 운영하며 도서관을 둘러싼 공동체 문화를 선도해 왔다. 이에 따라 도서관 공간은 정보 환경과 시대별 이용자의 문화 요구에 부응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지속적으로 진화한다. 1970년대 프랑스의 미디어테크(Mediatheque), 1990년대 후반 북미 대학도서관 중심으로 나타난 인포메이션 커먼스(Information Commons), 2008년 등장한 라키비움(Larchiveum)과 최근에 등장한 GLAM(Gallery, Library, Archive, Museum) 등 다양한 복합문화시설에 기반하여 도서관은 시민의 생애 전주기적인 독서, 창의, 건강, 인문 등 공동체 삶에 밀착한 문화 프로그램에 언제나 진심이다.

한국도서관협회가 함께하는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 프로그램은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도서관 지혜학교’, ‘병영독서활성화 지원 사업’ 등이 있다.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은 도서관을 활용해 인문 가치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모두를 위한 인문 향유의 기회 확대 및 생활 속 인문 정신문화 가치 확산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3년에 처음으로 121개 도서관에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높은 수요에 부응하며 지원 규모가 확대되었다. 2022년에는 272개 도서관에서 운영하며 10만 7,783명이 참여하였다.

‘도서관 지혜학교’는 활동적 고령자층(신중년)의 주체적 인문 활동을 지원하여 지혜로운 노년의 모델을 만들고 인문의 사회적 의미와 가치 확산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고학력 은퇴자 증가 등 인문학습 수요에 대응하고, 대학 강사 등 인문 전공자의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도서관과 지역대학이 연계하여 수준 높은 심화 인문학습 강좌를 지원한다. 사업 시행 첫 해인 2019년에는 국공립대학교 6개교와 공공도서관 9개 도서관에서 9개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53명이 참여하였고, 2022년에는 공공도서관 138개 도서관에서 141개 심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1,061명이 참여하였다.

초고령사회, 지역소멸,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등 심각한 사회문제 해결의 디딤돌인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과 ‘도서관 지혜학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문화 프로그램이다.

‘병영독서활성화 지원 사업’은 입대부터 전역까지 병영 전 기간에 걸쳐 체계적 독서교육 및 독서 환경 조성을 통해 소통과 포용의 병영문화를 조성하고 인문독서 가치 확산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병영 독서코칭은 일반병사 및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도서를 보급하고 독서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독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병들이 슬기롭게 병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지지한다. 이를 통해 형성한 독서 습관을 기반으로 평생 독자가 될 수 있게 한다. 한국도서관협회의 ‘병영독서활성화 지원 사업’은 병영생활 중 장병에게 할 수 있는 지원 중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를 선물한다고 단언한다.

도서관 공간은

정보 환경과 시대별 이용자의 문화 요구에 부응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지속적으로 진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는 이 사업을 위해 2022년에 약 2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2023년에도 약 20억 원을 지원하였다. 《어린왕자》속 구절처럼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병영독서활성화 지원 사업’을 경험한 장병의 삶은 천천히 더 빛날 것이다. 그리고 느리더라도 반드시 우리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 낼 것이다. 작지만 소중한 씨앗이 되는 ‘병영독서활성화 지원 사업’이 지속되어 국군장병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의 삶에 선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제88회 WLIC, 그리고 제60회 전국도서관대회

전 세계 도서관인들이 교류하는 세계도서관정보대회(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이하 WLIC)가 제88회를 맞아 올해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열렸다. ‘Let’s work together, Let’s library’의 대주제 아래 여러 세션에서는 인공지능(AI), 포용과 지속가능성을 주된 주제로 다루며 각국의 도서관인들이 도서관 문화와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서관인의 축제인 전국도서관대회가 제60회를 맞아 10월 18일에서 10월 20일까지 3일간 제주도에서 개최된다. ‘발전의 60년, 함께하는 도서관의 미래’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전국도서관대회는 3,000여 명 이상의 도서관인과 시민이 함께한다. 도서관 분야에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도입한 첨단 전시회가 마련되고 도서관 투어 및 도서관인 제주 올레길 함께 걷기 프로그램, 다양한 학술 컨퍼런스도 준비된다. 독서의 계절인 10월, 도서관인과 이용자의 축제인 제60회 전국도서관대회가 열릴 제주도에서 만나 도서관의 미래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제88회 WLIC 개최식 축하에서 네덜란드 라우렌틴 왕자빈은 “외로움의 반대말은 도서관이며, 그것이 우리 사회에 도서관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한 바 있다. 세계적으로도 도서관은 공동체 그 자체로 존재가치가 빛난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읽고, 토론하고 묻고 듣고 경험하고 창의하고 연구하고 만들고 놀고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도서관, 그 속에서 빛나는 사서는 한국도서관협회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이상이다. 한국도서관협회는 제60회 전국도서관대회를 맞아 우리 도서관인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축제가 되도록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시민들의 공동체인 도서관의 축제를 통해 지혜를 모아 우리 도서관이 미래로 나아갈 길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

시민들의 공동체인 도서관의 축제를 통해 지혜를 모아 우리 도서관이 미래로 나아갈 길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도서관, 지역의 문화사랑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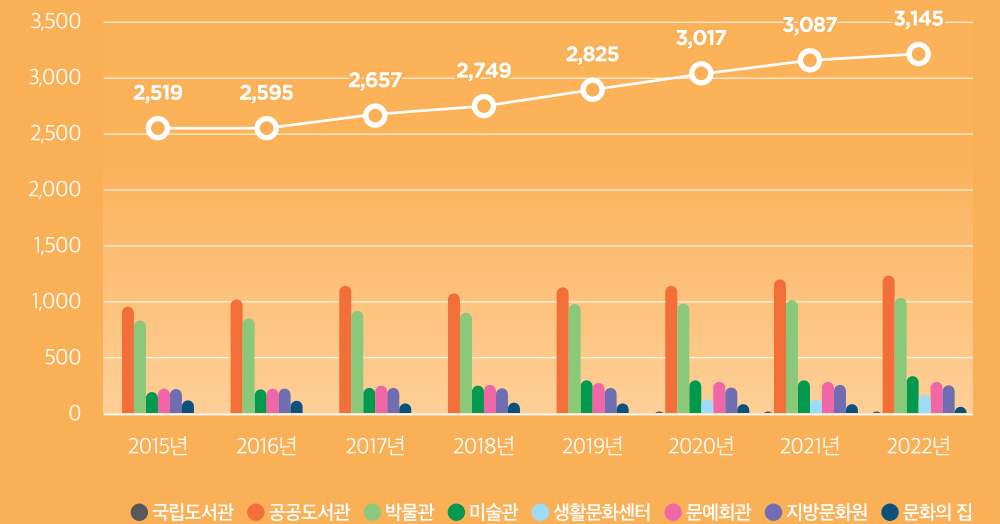
글, 사진 이현진 와우컬처랩 대표



지난 10여 년간 공공도서관 인프라는 크게 확충되었지만, 대출자의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인구수가 줄고 있어 도서관 이용률은 더 떨어지리라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도서관은 자체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민간, 지자체,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문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꾸준히 확대하여 이용자 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책과 독자, 출판사를 잇는 일을 하고 있기에 책·문화 활성화를 위해 그간 만들어온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지역 문화 사랑방으로서의 도서관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전국 문화기반시설 연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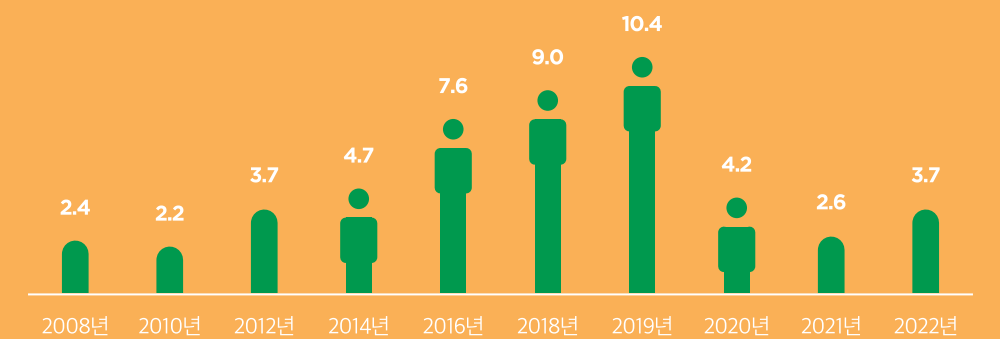
(단위: 개)



자료출처: 2022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예술행사 참여율 추이

(단위: %)



자료출처: 2022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어린이책놀이터 프로그램

아동을 위한
그림책 읽어주는 프로그램과
그림책 안의 내용을 토대로
인형극, 놀이 프로그램 등을
만들었고,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수업과 글쓰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도서관 문화행사와 책축제

한 지역에 오래 살다 보면 주변 시설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필자는 경기 고양시에 2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데, 고양시에는 도서관이 많습니다. 지하철에도 스마트 도서대 출기가 있습니다. 도서관에도 자주 가지만, 전철역에서도 읽고 싶은 책이 있는지 스마트 도서대출기를 확인해 보곤 합니다. 또한, 고양시에는 작가, 편집자, 번역가 등 문학, 출판 관련 사람들뿐만 아니라 과학자, 예술가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고양시 도서관에서는 관내에 사는 전문가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필자 또한 고양시의 주민이기도 하고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도서관 문화행사에 대해 자문하거나 기획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필자가 속한 회사는 독자, 책, 출판사를 잇는 북페스티벌을 19년째 하고 있습니다. 2005년 축제를 시작할 때부터 노력을 기울였던 프로그램은 '어린이책놀이터'였습니다. 축제 기간 부모와 함께 오는 어린이들이 책과 함께 놀면서 쉬기도 하는 공간으로 책놀이터를 조성하여 그림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 책 안의 내용을 활용한 아동극, 인형극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상당히 인기가 있어 이후 지역의 미술관, 도서관 등 여러 곳에서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필자의 회사는 책과 연결하여 재미있는 경험을 기반으로 책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그들의 흥미를 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더 많은 독자를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많이 해왔습니다. 아동을 위한 그림책 읽어주는 프로그램과 그림책 안의 내용을 토대로 인형극, 놀이 프로그램 등을 만들었고,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수업과 글쓰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5~6년 전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필자의 회사가 주관한 문학활성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전국 도서관 대상 문학퀘스트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7~8단계의 퀘스트를 수행하여 책 제목을 맞추게 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주는 문학활성화 캠페인이었습니다. 2015년부터는 신진 그림책작가 발굴을 위한 그림책더미북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공모전을 통해 당선된 그림책 작가들의 작품은 그림책 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엔 공모전을 통해 출간된 그림책 작가들의 원화전시를 필자의 회사가 주최·주관하는 축제에서 진행한 후 파주중앙도서관에서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소개한 북페스티벌은 전국 지역에 100여 개가 넘을 만큼 많은 북페스티벌의 모태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필자의 회사는 전국의 지자체와 도서관의 자문을 요청받았고 그간 해온 북페스티벌의 자료와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민간, 지자체, 중앙정부와 협력하는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민간 사례인 '10월의 하늘'은 KAIST 정재승 교수를 중심으로 과학자들이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도서관을 찾아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연하는 재능기부 과학강연 행사입니다. 전국 각지의 시립, 군립 도서관에서 이뤄지는 이 행사는 2010년 29개 도서관에서의 진행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50개 도서관으로 행사를 늘려가고 있으며, 과학기술 관련 연구원, 대학원생, 교수, 과학자, 교사 등 준비위원에서부터 강사까지 모두 재능기부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서관상주작가지원사업'은 문학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전국 공공도서관에 문인이 상주하여 지역 주민의 문학 향유를 돕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공공도서관에는 전문 인력과 문학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상주작가에게는 월간 급여를 지원하여, 지역의 문학적 수요를 활성화하고 문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창작여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책을 매개로 한 예술적 교감을 바탕으로 주민과 작가가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작가들이 기획하고 주민들이 참여하여 지역에 안착시키고 있어 이 사업이 더 많은 작가와 도서관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수요를 수용하면서
책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지역의 문화사랑방으로
뿌리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화사랑방으로서의 도서관

《2022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한 비율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떨어지긴 했으나, 조금씩 증가하여 그 참여율이 3.7%였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 희망을 밝힌 사람들의 비율은 8.8%로 2배 이상이고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2022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전국 문화기반시설에서 도서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38.5%로 가장 많으며 문화기반시설 중 접근성이 가장 좋고 이용률도 높아 지역의 문화예술 수요를 감당하는 문화향유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실물자료 열람 및 대출, 시설 및 기기 이용 제공 등과 같은 전통적인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전부터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도서관은 문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꾸준히 확대하여 이용자 수를 늘려왔습니다.

도서관은 공공서비스를 위한 장소입니다. 그렇기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어울려 살아가는 공간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서관에서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취미활동을 하고 함께 책을 읽으며 생각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말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수요를 수용하면서 책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지역의 문화사랑방으로 뿌리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북페스티벌 행사 모습

가을에 만나는 도서관 축제

자료제공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

올해 10월 15일(일)은 국립중앙도서관이 78번째 생일을 맞는 날이다. 개관기념식부터 음악회, 학술대회 등 다채로운 개관 기념행사가 열린다. 또한 10월 18일(수)부터 20일(금)까지 3일간,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주관하는 ‘제60회 전국도서관대회·전시회’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개최된다. 가을 산책을 떠나기 좋은 10월, 온 국민이 함께 즐기는 도서관 축제의 현장으로 떠나보자.

10월
12일

학술행사

2023 오픈엑세스 콘퍼런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오픈엑세스 인식 제고 및 거버넌스 확산 도모를 위해 오픈엑세스 유관기관들과 10월 12일(목)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2023 오픈엑세스 콘퍼런스’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각 유관기관들의 오픈엑세스 실천을 위한 공동 선언과 해외 전문가 강연 및 주제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 일시** 10월 12일(목) 13:30~17:00
- 장소**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 온라인 동시 생중계(국립중앙도서관 및 KISTI 유튜브)
- 대상** 오픈엑세스에 관심있는 연구자, 도서관, 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
- 주제** 오픈엑세스의 미래: 함께 협력하고, 함께 실천하다
- 내용** 오픈엑세스 실천 공동 선언, 해외 전문가 강연 및 주제발표 등

문화행사

도서관 음악회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78주년과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도서관 음악회’가 개최된다.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10월의 가을 정취를 즐길 수 있도록 탁 트인 도서관 앞 잔디광장에서 진행되며, 정통 클래식 뿐만 아니라 재즈·뮤지컬·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만날 수 있도록 특별한 출연진과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 일시** 10월 12일(목) 17:00~18:30
- 장소**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앞 잔디광장
- 대상** 전 국민
- 내용** 클래식, 뮤지컬, 재즈밴드, 대중가요(가수 정동하) 공연

※ 도서관 행사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78주년 개관 기념행사 제60회 전국도서관대회·전시회

10월
13일



문화행사

2023 제3회 저자와의 만남(안톤 허)

국립중앙도서관은 작가 겸 번역가인 안톤 허¹⁾ 강연회를 개최한다. 9월 25일(월)부터 10월 11일(수)까지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에서 사전신청을 받고 있으며, 10월 12일(목)에 추첨 후 선정된 100명에게는 개별문자를 발송하고 누리집에도 공지된다. 사전 공연으로는 이상진 트리오의 ‘도서관 콘서트, 폴인재즈’가 열린다.

- 일시** 10월 13일(금) 11:00~13:00
- 장소**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B3)
- 대상** 도서관 이용자 및 일반인 100명
- 강연명** 한국문학 영미권 출간의 험난한 길
※ 주제도서: 《하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요?》

1) 안톤 허는 정보라 작가의 단편소설집 《저주토키》번역가로 지난해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정 작가와 함께 올랐다

기념행사

78주년 개관기념식

국립중앙도서관 78주년 개관기념식을 개최한다. 개관기념식은 도서관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하는 협력유공 시상식과 신기술 융합 콘텐츠 체험공간인 ‘열린마당’ 개관으로 이어진다. 도서관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다지고,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도서관 콘텐츠의 변모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 일시** 10월 13일(금) 14:00~15:00
- 장소**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1층 열린마당
- 대상** 도서관 및 유관기관 관계자, 협력유공 수상자 등
- 내용** • 78주년 개관기념식 및 협력유공 시상식
• 열린마당 실감체험관(K-문학의 재발견 등) 개관 및 관람

학술행사

K-문학의 확산: 세계와 함께 읽는 한국문학

근대문헌 연구 기반 확대 및 한국문학 가치 확산을 위해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한국문학관 공동 주최로 ‘K-문학의 확산: 세계와 함께 읽는 한국문학’이 열린다. 학술발표에 앞서 소설가 윤고은, 편혜영의 대담이 문학평론가 박혜진의 사회로 펼쳐진다. 세계 속 한국 문학의 의미와 가치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 일시** 10월 13일(금) 13:00~18:00
- 장소**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 대상** 한국문학 연구자, 도서관 이용자 및 일반인 100여 명
- 내용** • (작가대담) ‘내가 만난 세계의 독자’ 평론가 박혜진 사회, 소설가 윤고은·편혜영 대담
• (학술발표) 1부 ‘기록’ 이미륵·김소운 기증자료의 가치, 2부 ‘해석과 전망’ 한국문학의 확산과 세계문학적 소통

10월
18~20일

제60회 전국도서관대회·전시회



1962년부터 시작해 올해 60회째를 맞는 전국도서관대회는 전국의 도서관 사서들을 비롯한 도서관 관련 단체와 문헌정보학과 교수, 학생, 전시 관계자 등 3,500여 명이 참석해 각종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도서관계 최대 축제다.

올해 대회 주제는 '발전의 60년, 함께하는 도서관의 미래'로 전국도서관대회가 60년간 열리는 동안 도서관은 발전을 거듭해왔으며, 앞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길 바라는 의미를 담았다. 이번 전국도서관대회는 제60회를 기념하여 60여 개의 교육 프로그램과 국내외 최신 도서관 신기술 등을 선보이는 도서관문화전시회를 연다.

60여 개 사, 140여 개 부스를 운영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소속 국가도서관위원회에서는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3년 시행계획(안) 작성 지침 설명회'를 개최하며,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한국목록규칙 제5판의 개정 방향과 주요 내용', '도서관 공간-뉴패러다임', '사서를 위한 AI 리더러시' 튜토리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총 3일간 열리는 제60회 전국도서관대회·전시회 첫째 날인 10월 18일(수)에는 '개회식(13시 40분)'과 '도서관문화전시회', '만남의자리(리셉션)' 등이 진행된다. 개회식에서는 2023 도서관 운영 유공 우수도서관 시상식 및 2023년 이병목 참사서상²⁾ 시상식이 진행된다. 각종 학술 프로그램, 도서관문화전시회는 첫째 날인 18일(수)과 둘째 날인 19일(목) 양일간 집중적으로 열리며, 셋째 날인 20일(금)에는 참가자가 개인 및 단체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을 탐방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도서관대회 누리집(<https://conference.kla.kr>)에서 확인 가능하다. ²⁾

- 일시** 10월 18일(수)~20일(금)
-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 대상** 전국 도서관 사서, 도서관 관련 단체 및 관계자 등
- 내용** 도서관문화전시회 부스 운영, 각종 학술 프로그램, 도서관 탐방

※ 행사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을 만나다



14 이달의 전시

'이야기, 무대에 오르다'
도서와 아카이브로 보는 공연예술
국립중앙도서관-국립중앙극장
공동기획전

18 문헌의 가치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통일 분류표와
목록규칙 초판본,
《조선십진분류표》와 《조선동서편목규칙》

26 도서관 여행자

새로움과 혁신의 아이콘
'일본 이시카와현립도서관'

22 꿈을 이루는 도서관

문화와 미래를 이끄는 도서관
'포항시립포은중앙도서관'

30 도서관 트렌드

자연과 어우러지는
친환경도서관

2) 이병목 참사서상은 이병목
연세대 명예교수(문헌정보학
전공)가 출연(出捐)한
3억 원의 기금으로 2016년
한국도서관협회가 제정한 상이다

‘이야기, 무대에 오르다’

도서와 아카이브로 보는 공연예술

자료제공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국립중앙극장
공동기획전

01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중앙극장은 우리의 옛이야기를 주제로 도서관의 소장 장서와 극장의 공연예술 작품을 한자리에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야기, 무대에 오르다’ 전시는 7월 31일(월)부터 10월 31일(화)까지는 국립중앙도서관 전시실에서, 11월 14일(화)부터 내년 3월 31일(일)까지는 국립중앙극장 공연예술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무대가 아닌 색다른 장소에서 펼쳐지는 공연예술을 경험해보며, 그 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함께 살펴보자.



02

1부 무대에서 노래하는 옛이야기

이번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무대에서 노래하는 옛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옛이야기인 판소리를 주제로 한 공간이다. 판소리는 대표적인 구비문학 중 하나로 창자가 고수의 복장단에 맞추어 서사적인 이야기를 노래로

부르는 ‘창’과 말로 하는 ‘아니리’를 교차하며 구연하는 우리의 전통 공연예술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판소리 다섯 마당인 <춘향가>, <심청가>,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등 우리 민족의 희로애락이 담겨있는 이야기와 이를 무대 위에 구현한 공연예술을 만나 볼 수 있다. 특히 판소리는 조선 후기에 발달한 민중 예술로서 우리나라 국가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따라서 서민들의 신분 상승 욕구나 사회 비판의식이 잘 드러나 있으며, 당시 사회가 처한 상황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각 판소리의 작품 소개와 이제는 사라진 옛 공연예술 포스터를 보며, 현재까지도 오페라·뮤지컬·무용 작품 등으로 각색되어 활발히 공연되고 있는 판소리 무대를 떠올려본다.

- 01 1부 ‘무대에서 노래하는 옛이야기’ 전시 모습
- 02 판소리 다섯 마당 중 하나인 <심청가> 작품 소개 공간
- 03 판소리 다섯 마당 중 하나인 <흥보가> 작품 소개 공간

03





04

2부 무대에서 펼쳐지는 옛이야기

2부는 ‘무대에서 펼쳐지는 옛이야기’이다. 이번 전시 공간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입에서 입으로 내려온 우리나라 전통 설화 이야기와 이를 소재로 삼은 공연예술 작품을 살펴볼 수 있다. 설화는 신화, 전설, 민담 등을 통틀어 이르는 것으로 사람들의 입으로 전승된 것이기 때문에 시대와 지역을

특정할 수는 없으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전파되는 특성이 있다.

설화의 또 다른 특징은 듣는 사람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역사 시대 이전에는 기록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인류는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흥미나 교훈을 주기 위하여 구연하였다.

설화는 우리의 전통문화와 민족의 심성을 담고 있기에 연극과 무용, 발레,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로 무대에 오른다. 이번 전시에서는 <견우직녀>, <아기장수>, <처용>, <호동>, <지귀> 등 설화를 주제로 한 공연예술 작품과 도서를 소개한다. 각 설화마다 지닌 고유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전통 설화 이야기를 담은 공연예술 작품을 음미해본다.

04 2부 ‘무대에서 펼쳐지는 옛이야기’ 전시 모습

05 설화 <처용> 작품 소개 공간

06 일반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2023년, 다시 쓰는 옛이야기’

07 3부 ‘아카이브로 보는 공연예술 이야기’ 전시 모습



16

3부 아카이브로 보는 공연예술 이야기

마지막 3부 ‘아카이브로 보는 공연예술 이야기’에서는 앞서 살펴본 공연예술을 현재의 우리가 다시금 경험할 수 있도록 기록한 공연예술 아카이브를 소개하는 공간이다. 무대에 오르는 순간 사라지는 공연예술의 특성 때문에 이를 기록한 자료는 공연예술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벽면에 전시된 자료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국립중앙극장에서 공연된 포스터 아카이브이며, 당시 공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로서 포스터 디자인의 변천사와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 안쪽의 영상실에서는 현재 국립중앙극장의 전속단체인 국립창극단과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의 공연영상 아카이브를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살펴본 옛이야기를 오늘날 자신만의 이야기로 각색해 보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내가 새롭게 창작한



06

이야기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다. 공연예술의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이번 전시가 많은 이들에게 즐거운 기록으로서 남겨지길 희망해본다. 📖

07



17

朝鮮十進分類表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통일 분류표와 목록규칙 초판본,

《조선십진분류표》와 《조선동서편목규칙》

글 조혜린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과장 사진 국립중앙도서관



01

朝鮮東書編目規則

필자는 2020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사연구회’를 구성하여 매년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는 국립도서관 박봉석 부관장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인데, 그 과정에서 해방 이후 박봉석이 편찬한 분류표와 목록규칙 원본을 서고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통일 분류표인 《조선십진분류표(朝鮮十進分類表, 1947)》(청구기호 GP013-3)와 최초의 목록규칙인 《조선동서편목규칙(朝鮮東書編目規則, 1948)》(청구기호 GP024.32-16-1)이다. 도서관업무 현장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는 분류표와 목록규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방 당시 우리나라에는 한국인 사서도 거의 없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만든 분류표와 목록규칙도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박봉석이 고안하고 국립도서관에서 발행한 우리나라 최초의 통일된 분류표와 목록규칙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도서관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도서관의 일꾼,

즉 사서를 양성하거나

현직 도서관인을

교육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통일 분류표 《조선십진분류표》

해방 이후 우리나라 도서관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도서관의 일꾼, 즉 사서를 양성하거나 현직 도서관인을 교육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사서자격과 실무능력을 겸비하여 분류와 목록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박봉석 뿐이었기에 박봉석은 이들 자료의 편찬을 서둘러야 했다.

박봉석의 서언(叙言)에 의하면, 국립도서관으로서 신시대에 적응하고 또 한국적인 신분류를 새로 개정할 필요를 느껴 십진분류표의 초안을 만들었고, 1946년 2월 국립도서관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여 도서관학교의 개교에 따라 그 초안을 교재로 썼다고 한다. 이어 같은 해 7월 15일에는 《동서도서분류표(東西圖書分類表)》¹⁾라는 이름으로 46배판 크기의 등사판 200부를 발행했는데, 이 강의용 초안은 ‘조선도서관학교’와 단기 실무강습회인 ‘도서관사업강습회’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1년 후인 1947년에는 조선도서관협회의 전국통일 분류표 제정 결의에 따라 K.D.C라는 부제 하에 《朝鮮十進分類表》로 개제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통일 분류표가 탄생하게 되었다. 《조선십진분류표》는 개관 2주년이 되는 1947년 10월 15일에 국판 크기의 활판 인쇄물로 국립도서관에서 발행되었으며, 총 120페이지로 350부를 인쇄하여 실비 250원(圓)에 반포하였다. 구성은 조선도서관협회장 이재욱의 서(序), 편자인 박봉석의 서언(敍言), 목차, 사용예언(例言), 본표의 구성, 기호배당법, 청구번호와 도서전(圖書箋=도서라벨), 성별기호사용법, 주류표, 제1표(강목표), 제2표(요목표), 제3표(세목표), 상관건명(件名=주제명)색인, 성별기호표, 아동도서분류표로 이루어져 있다. 주제분류는 0류 총류, 1류 철학·종교, 2류 역사·지리(地誌), 3류 어학·문학, 4류 미술·연예, 5류 사회·교육, 6류 정법·경제, 7류 이학·의학, 8류 공학·공업, 9류 산업·교통으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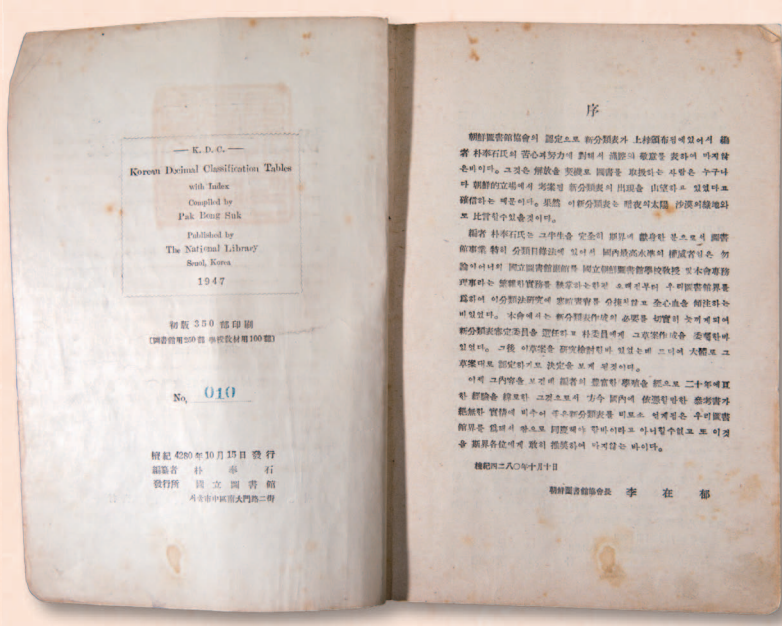
이 분류표의 특징은 처음으로 우리나라 위주의 분류 전개가 가능해졌다는 점, 동서와 양서에 공통으로 적용하여 별도의 분류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 조기표를 사용했다는 점,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1, 2, 3표로 구분했다는 점이다. 즉, 제1표는 장서 1만 부 이하의 소도서관용, 제2표는 장서 10만 부 이하의 중도서관용, 제3표는 장서 10만 이상의 대도서관용으로 구분하였다. 이중 전국적인 통일분류표로서 조선도서관협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제2표이다. 박봉석은 ‘분류표의 통일문제’²⁾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해방을 계기로 하여 전국도서관은 왜색을 버리고 조선적인 분류표로 전부 개정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천재일우의 시기가 온 것이다. (중략) 앞으로 전국도서관 종합 목록을 작성하고, 신간 도서카드를 작성하여 배포하게 되고 도서관 상호간에 순회 도서가 자주 있게 되면 통일분류의 필요성이 더욱 명료하게 될 것이다. 도서관사업의 백년대계를 미리 미리 우리는 준비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도서관은 일지방의 도서관이 아니고, 전 국가의 도서관인 동시에 국민 문화기관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우리는 유기적으로 전국이 모든 제도를 통일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줄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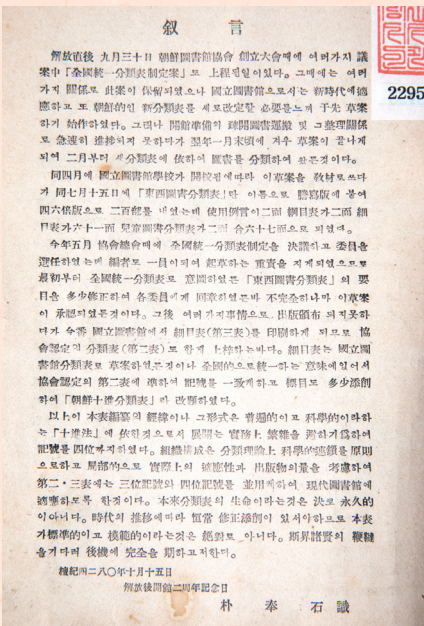
01 《조선십진분류표》

표지(1947. 10. 15. 발행)와
《조선동서편목규칙》 표지
(1948. 10. 15. 발행)

- 1) 등사판으로 제작된 강의용 초안 《東西圖書分類表》(1946. 7. 15.)와 《東書編目法》(1947. 4. 21.)은 지질상태가 좋지 않고 열화현상이 상당히 진행되어 판독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
- 2) 朴奉石, 〈分類表의 統一問題〉, 《문원》 제24호(1948. 2. 1.), 1면



02



03

- 02 《조선십진분류표》 판권기 및 이재욱 관장의 서(序)
- 03 《조선십진분류표》 박봉석의 서언(敍言)
- 04 국립도서관 박봉석 초대 부관장 (박봉석 차남 박광욱 사진 제공)
- 05 《조선동서편목규칙》 판권기 및 이재욱 관장의 서(序)
- 06 《조선동서편목규칙》 박봉석의 예언(例言)

《조선동서편목규칙》 또한 《조선십진분류표》와 함께 유일한 도서정리의 도구로서, 해방 이후 국립도서관은 물론 전국의 많은 도서관에서 이 규칙을 사용하여 목록을 작성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목록규칙 《조선동서편목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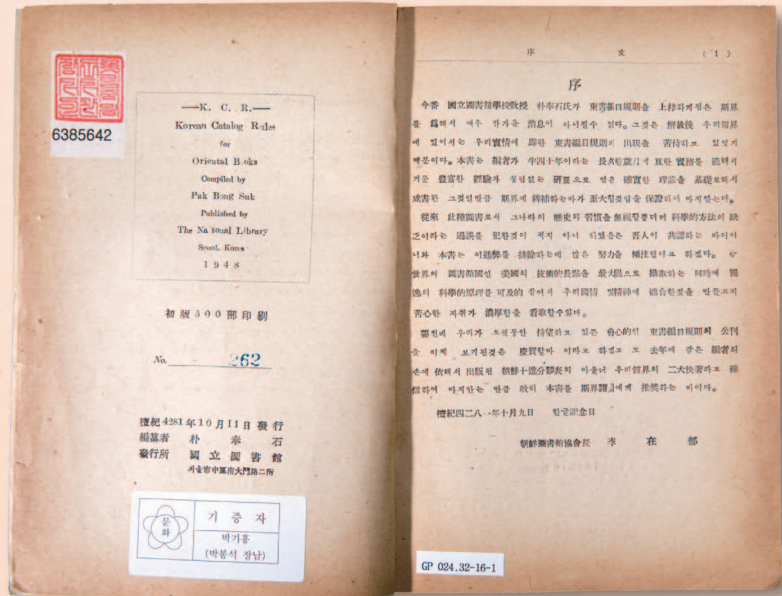
《조선동서편목규칙》 또한 《조선십진분류표》와 함께 유일한 도서정리의 도구로서, 해방 이후 국립도서관은 물론 전국의 많은 도서관에서 이 규칙을 사용하여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 목록규칙도 국립도서관학교의 교재로 사용하던 《동서편목법(東書編目法)》 초안을 기초로 하되 전체적으로 개편한 후 K.C.R.이라는 부제 하에 국립도서관에서 발행되었다. 박봉석의 예언(例言)에 의하면, 1947년 5월 조선도서관협회 총회 개최 시에 전국통일편목규칙 제정 안을 결의하고 위원을 선임하였으며 편자(編者) 박봉석도 위원의 일원이 되어 기초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발행은 《조선십진분류표》보다 1년 늦은 1948년 10월 15일 국립도서관 개관 3주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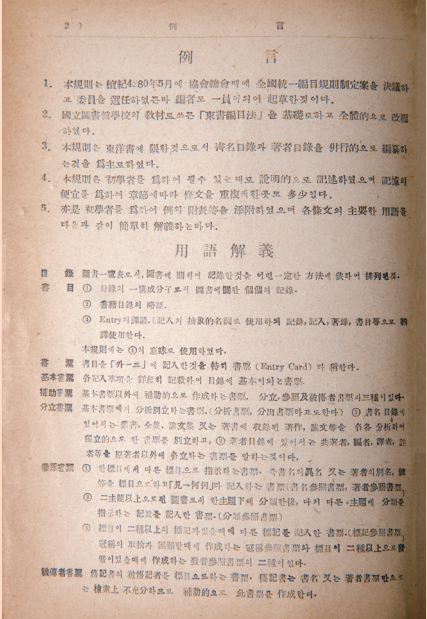


04

- 3) 박熙永, <잊을 수 없는 사람: 圖書館 개척자 朴奉石 (4)>, 《신아일보》 제3316호(1976. 1 21.), 4면



05



06

기하여 이루어졌다. 총 44페이지 국판 크기의 활판 인쇄물로 500부 인쇄하여 전국의 도서관과 도서관학교의 교재로 배포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박봉석의 장남故박기홍씨(2022년 타계)가 기증한 것이다.

내용은 조선도서관협회장 이재욱의 서(序), 예언(例言), 용어해의(用語解義), 조문세목(條文細目), 규칙조문, 표준카드, 부표(附表), 동서역대간지연표(東西歷代干支年表), 연기환산표(年紀換算表), 간지세양세음표(干支歲陽歲陰表), 중국연호색인으로 구성돼 있다. 동양서에 한정된 목록규칙으로서 동양에서 전통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서명기본기입 방식을 채택한 점이 특징이다.

조선도서관협회장 이재욱의 서(序)에 의하면, 박봉석 부관장은 약 20년간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연구를 통해 미국의 기술적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리고 독일의 과학적 원리를 살려서 우리나라의 실정과 정신에 적합한 목록규칙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재욱은 또 《조선동서편목규칙》이야말로 “《조선십진분류표》와 아울러 우리 도서관계의 2대 궤저라고 확신한다”고 극찬하였다.

이처럼 《조선동서편목규칙》은 해방 이후 우리 실정에 따른 목록규칙으로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우리나라 최초의 목록규칙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박봉석의 후배이자 동료였던 사서 박희영의 말을 인용하여 필자의 심정을 대변하고 싶다. “도서관학의 제일인자였던 선생의 열성은 한국 도서관학과 도서관 발전에 불멸의 공을 남겼다.”³⁾

향후 국립중앙도서관사연구회 차원에서 박봉석의 저작물을 전수조사하고, 그가 저술한 일제강점기 자료의 번역 및 국한문혼용체 자료의 입력을 통해 박봉석 전집까지 발간해보리라 다짐해 본다. 📖



도서관에서
창작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다

문화와 미래를 이끄는 도서관 ‘포항시립포은중앙도서관’

취재 신수빈 사진 정인수, 포항시립포은중앙도서관

도심 속 도서관은 사람과 문화를 이어주는 도서관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특히 병원, 터미널, 마트, 구청 등 주변의 편의 시설과 어우러지며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한 도서관은 문화와 정보교류를 통한 복합문화공간으로써 지역주민들을 이끌고 있다. 그중에서도 웹툰창작체험관과 실감서재 등을 운영하며 미래를 창조하는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난 포항시립포은중앙도서관(이하 포은중앙도서관)을 찾았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정보와 문화의 등지

도심에서 책을 읽고, 풍성한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는 포은중앙도서관. 현재의 포은중앙도서관이 자리하기까지 건립 배경과 명칭에 대한 유래를 살펴보자. 우선 포항시는 오랫동안

동안 철강 산업을 기반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해오면서 문화와 학문이 빈약한 지역으로 이미지가 굳어져 있었다. 이러한 이미지를 탈피하고, 지역에서 활동한 학자 및 예술인들을 재조명하여 포항의 정신문화를 계승 발전해나가고자 2007년 5월 구 시청 자리에 ‘포은도서관’이 개관했다. 이후 2015년 7월에 등지 모양의 건물을 신축하고 공모를 통해 지금의 ‘포은중앙도서관’이 준공되었으며, 그해 10월에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포은중앙’은 고장의 대표 학자인 정몽주 선생의 정신을 되살려 학문적 뿌리가 깊은 고장, 지식문화도시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고자 선생의 호 ‘포은(圃隱)’과 도서관을 대표하는 센터로서의 역할에 적합한 ‘중앙’을 더하여 만들어졌다. 연면적 9,812㎡,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으로 구성된 포은중앙도서관은 자료실 683석, 강의실 220석, 어울마루(강당) 188석의 수많은 좌석과 도서 22만 8,843권, 비도서 5,355점으로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제공한다.

규모가 큰 도서관인 만큼 유아·어린이·일반자료실 말고도 어문학자료실과 만화자료실, 웹툰창작체험관, 미디어 스튜디오 등이 있으며,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인 쉼터, 이야기방, 어르신방, 어울마루, 야외정원 등이 있다. 또한 강의실과 상주작가실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포은중앙도서관은 포항시민을 품어내는 정보와 문화의 등지로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어린이자료실에서 이용자들이 책을 읽고 있다



창작의 재미를 더하는 웹툰 프로그램

포은중앙도서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그중 수강생들의 인기가 많아 항상 수강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웹툰창작체험관과 배움1터에서 진행하는 ‘웹툰 프로그램’이다.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웹툰, 디지털드로잉, 캐리커처 등 5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먼저 ‘나의 캐릭터로 이모티콘 만들기’ 프로그램은 초등 3학년~중등 3학년을 대상으로 A반과 B반으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클립스튜디오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캐릭터를 제작하고, 나만의 캐릭터로 이모티콘을 만들어 보는 활동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토닥토닥 위로가 되는 따뜻한 디지털드로잉’ 프로그램은 갤러리시럽 혹은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수강생의 상황에 맞게 스케치, 채색, 묘사 단계별 피드백을 통해 디지털드로잉에 대한 효능감을 높인다.

‘즐겁고 재밌는 웹툰 그리기’ 프로그램은 초등 5학년~중등 3학년을 대상으로 클립스튜디오 프로그램을 활용한 캐릭터 및 웹툰 그리기 기초과정을 배운다. 각종 채색도구 및 기법을 사용하고 구도와 다양한 웹툰작법을 활용해보는 활동이다. ‘개성이 다양한 캐릭터 그리기’ 프로그램은 초등 3~6학년을 대상으로 기초 표정과 동작을 그려보고 동물과 사물을 캐릭터화해보며 나만의 캐릭터를 완성하고 채색해본다. 연령별 다양한 웹툰 창작 프로그램을 통해 만화콘텐츠에 대한 흥미를 키우고, 웹툰 인재 양성 및 발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감서재에서 첨단 기술이 적용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다

살아 움직이는 책을 만나는 실감서재

지난 4월 28일에 개관한 포은중앙도서관의 ‘실감서재’ 전시 공간에서 글자와 스토리가 살아 움직이는 책을 만날 수 있다. 실감서재는 첨단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도서관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상설 전시 공간이다. 면적 57m²(17평) 규모로 국립중앙도서관 콘텐츠를 활용한 ‘검색의 미래’, ‘디지털 북 키오스크’, ‘인터랙티브 지도’로 이루어져 있다.

‘검색의 미래’는 대형 미디어 월과 터치 테이블을 이용해 사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미래정보 검색 시스템으로 터치 테이블에서 원하는 분야를 터치하면 시각화된 추천 도서들을 볼 수 있다.

‘디지털북 키오스크’는 터치를 통해 고도서 번역정보를 제공하며 국보인 허준의 《동의보감(東醫寶鑑)》, 조선시대 군사 훈련용 무예지인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 등을 만나 볼 수 있다.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는 무예 동작 그림을 터치하면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다.

‘인터랙티브 지도’는 고지도를 고해상도 이미지와 동적인 콘텐츠로 제공한다. 보물인 조선시대 고지도인 ‘목장지도(牧場地圖)’와 김정호의 ‘수선전도(首善全圖)’를 경험할 수 있다. 실감서재는 도서관 휴관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확장된 문화 인프라를 향한 발돋움

매일 2,000여 명의 이용자들이 찾고 있는 포은중앙도서관은 2만여 권의 만화책을 소장 중인 만화자료실을 상시 운영하며 만화축제를 통해 수도권 중심의 만화산업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사서들이 자체 제작한 동영상 콘텐츠들로 가득한 공식 유튜브 채널도 매우 유익한 자료가 많으니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다.

9월 독서의 달에는 수강생들이 직접 공연하는 낭독극, 올해의 책 가족 퀴즈왕, 이종철 작가의 《제철동 사람들》 연극 각색 공연, 이종철 작가와의 만남, 어린이독서회 등 풍성한 행사가 이루어져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에서 알찬 시간을 보냈다.

이처럼 포은중앙도서관은 포항시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며, 복합문화공간의 특성을 100% 활용해 새로운 지식과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도서관의 역할을 멋지게 해내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발전과 문화 인프라



만화자료실에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만화책들이 마련되어 있다

확장을 위해 끊임없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등 포은중앙도서관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



웹툰창작체험관에서 ‘즐겁고 재밌는 웹툰 그리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즐겁고 재밌는 웹툰 그리기 참여자
박승연 님

“포은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웹툰 그리기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부모님께 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려서 참여하게 되었어요. 평소엔 웹툰을 즐겨 보는데 제가 직접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그려야 할지 막막했는데 강사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셔서 하다 보니 자신감이 생겼어요. 다음에 또 참여하고 싶습니다.”



즐겁고 재밌는 웹툰 그리기 참여자
이지성 님

“예전에 엄마가 신청을 해주셔서 프로그램에 참여했었는데 이번에도 참여하게 돼서 정말 기뻐요. 그림을 그릴 때는 그림에 집중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도서관에는 만화자료실도 있고 책이 많아서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웹툰과 만화와 관련된 도서관 프로그램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다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에요.”

LIBRARY INFORMATION

포항시립포은중앙도서관

🕒 **이용** 만화, 유아, 어린이, 디지털자료실
평일/주말 오전 9시~오후 6시
일반자료실, 어문학자료실
평일 오전 9시~오후 10시
주말 오전 9시~오후 6시

휴관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월요일 및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

📍 포항시 북구 삼호로 31
☎ 054-270-4600



새로움과 혁신의 아이콘 ‘일본 이시카와현립도서관’

글 최윤경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과 사서사무관
사진 일본 이시카와현립도서관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 소재한 이시카와현립도서관은 1912년에 개관한 후 1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한다. 처음에 일본의 3대 정원 중 하나인 겐로쿠엔 정원에 지어졌다가 1966년 지금의 위치로 이전하였다. 이후 건물의 노후화와 협소성, 주차 공간의 부족 등의 이유로 2015년에 재건축이 결정되었고, 2022년 7월 16일 재개관하였다. 이시카와현립도서관에는 최근 인기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나 실감 콘텐츠 전시관 등도 조성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 도서관만이 가진 독자적이고 특색 있는 부문들을 중점으로 소개한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도심 속 ‘지혜의 궁전’

이시카와현립도서관은 재개관 이후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랜드마크가 된 혁신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국가도서관위원회에서 개최한 <2023년 대한민국 도서관 한마당>에서 타무라 슌사쿠 관장의 발표를 보면, 지금까지 보던 도서관과는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여름, 도서관을 직접 보고 나니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첫인상은 건물 자체가 넓고 낮은 원형 건물이라 도서관보다는 돔이 있는 콜로세움 같았다. 또한 지상 주차장이 넓고, 주변에 꽃과 나무도 많아 마치 쇼핑센터 같기도 했는데, 이 도서관이 주변 환경과의 조화로움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새 건물을 짓고 공간과 서비스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책을 열람하고 대출하는 기본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넘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고자 하는 세심한 노력이 돋보였다. 이러한 노력들은 건물 외관부터 내부 공간, 자료의 배치와 가구까지 도서관을 이루는 모든 구성 요소들에서 온전히 느껴진다. 도서관 입구를 지나면 360도 원형 건물에 서가와 책 전면을 배치함으로써 도서관의 아름다움과 웅장함, 더 나아가 압도감을 방문객들에게 선사한다. 또한 서가와 곳곳의 사인물, 채광과 조명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도서관은 공간으로서의 매력을 극대화한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원하는 분위기의 장소에서 자료를 선택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100가지 유형의 좌석을 준비하고, 다양한 종류의 가구와 조명을 활용해 아늑한 독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시카와현립도서관이 이렇게 시도하고 실행한 이유는 간단하고 이상적이다. 바로 사람들에게 책과 함께하는 더 나은 일상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책을 읽지 않고 도서관에 오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 공간에 오면 책을 읽게 하고, 다시 이 공간을 찾고 싶게 만들고, 이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지식과 지혜의 공간이자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도서관의 기본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함이다.

소음을 소통으로 전환하는 도서관

도서관은 지하 1층 서고에서 지상 4층 열람 공간으로, 층이 높아질수록 원형 서가가 계단식으로 확장된다. 1층은 로비와 다목적홀, 열람 공간이 있는데, 가장 특징적인 공간은 문화교류구역인 ‘다목적홀’이다. 이곳에서 각종 문화행사와

01 이시카와현립도서관 내부 전경으로 층이 높아질수록 원형 서가가 계단식으로 확장된다

02 이시카와현립도서관은 다양한 유형의 좌석을 배치하고 있다

02





도서관을 만나다

도서관 여행자

03

교육이 열리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기도 한다. 특이점은 별다른 문 없이 사방이 뽕 뚫려 있어서 소리가 열람 공간까지 퍼진다는 점이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아무도 그 소음을 신경 쓰거나 문제 삼지 않았다. 보통 도서관은 조용히 해야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고 이용자 간에도 소음문제로 민원도 종종 발생하는데, 이 도서관에서의 소음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 불평하는 사람은 손쉽게 느껴질 정도였다. 물론 여기서 나는 소음은 다층식 공간구성과 건축 자재를 활용해 열람 공간에서 대부분 상쇄되었고, 열람 공간의 이용자들은 여느 도서관과 다름없이 조용하게 자료를 이용하고 있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다목적홀에서 담당 사서로부터 도서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었는데, 몇 분 지나고 주위를 둘러보니 옆에 지나가던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함께 앉아 경청하고 있었다. 도서관 이곳저곳에서 들리는 소리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겐 소음이 아닌, 흥미로운 정보가 되고,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도서관과 이용자의 상호 작용을 결과로 생기고 역동적인 도서관으로 인식되는 매개체가 되고 있었다.

지식의 우연한 발견에 최적화된 도서관

이시카와현립도서관이 다른 도서관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테마별 컬렉션이다. ‘책과 만나는 공간’이라는 콘셉트로 도서관 1층부터 4층까지 원형 서가를 이용해 12개 테마의 컬렉션을 배치한다. 소장자료 30만 책(점)은 기본적으로 일본 십진분류법에 따라 표준 분류기호를 부여하고 있지만, 컬렉션에 선정되면 테마 분류기호를 한시적으로 부여하여 배가와 전시에 활용하고 있다. 컬렉션의 대부분은 책 수가 적기 때문에 간략하게 분류하고 배가 순서는 크게 고려치 않았다. 그 이유는 정확한 배열보다는 ‘발견’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12개 테마는 이시카와현립도서관 사서들이 직접 선정했고, 테마별로 사서 1명을 전담시켜 컬렉션을 알리는 홍보물을 만들거나 신간을 엄선하여 비치하고 있다. 테마명은 ‘아이 키우기’, ‘일에 관한 생각’, ‘글쓰기를 경험한다’, ‘당신을 표현해보세요’, ‘내 몸 움직이기’, ‘호기심으로 가득차다’ 등 이용자에게 친숙하고 관심을 끌 수 있는 명칭이었다. 12개 상위 테마는 고정되어 있고, 아래 소주제는 700여 개로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테마 컬렉션은 지식의 큐레이터로서 사서의 역할을 명확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관심 있는 분야의 자료를 우연히 발견하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좋은 사례다.

한편, 이용자가 자료의 위치를 직관적이고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방향과 색깔을 조합한 컬러링 체계를 도입한 점도 매우 신선했다. 원형식 공간에서 자료의 위치로 찾아갈 때

방향 감각을 잃지 않도록 동서남북 방위를 4개의 색깔로 구분한 다음, 도서관 전체의 모든 사인물을 비롯한 검색 프로그램에도 함께 적용하고 있었다.

160m 둘레의 원형 서가가 있는 지상 4층에는 ‘책의 역사를 탐구한다’라는 테마 컬렉션으로 약 1만 2,000권의 자료가 비치되어 있다. 마치 ‘뫼비우스의 띠처럼 책의 역사는 끝이 없는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아래 3개 층의 아름다운 서가와 공간을 마주하면 환상적인 이 도서관에 다시 한 번 감탄하게 된다.

사서에게 영감과 자극을 주는 도서관

가나자와는 일본 여행을 처음 가는 사람에게 도쿄나 오사카처럼 손에 꼽는 여행지는 아닐 수 있다. 물론 문화의 도시, 아름다운 정원과 온천이 있는 도시이기는 하지만 예전의 필자라면 이 도시를 여행하기 위해 여기를 굳이 방문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시카와현립도서관을 방문하고 나니, 이 도서관 하나를 보기 위해서라도 가나자와를 가야 한다고 추천하고 싶다.

이시카와현립도서관은 현재 가나자와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가 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공간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공간에 최적화된 서비스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사서의 참신한 구상과 실천들이 도서관 시설과 작은 소품에서까지 묻어나왔다. 무엇보다 새로운 공간만 추구하지 않고 도서관 본연의 기능과 목적을 지키고 모든 자원을 동원해 이를 구현했다는 점이 사서로서 더 인상 깊은 점이다. 심지어 직원 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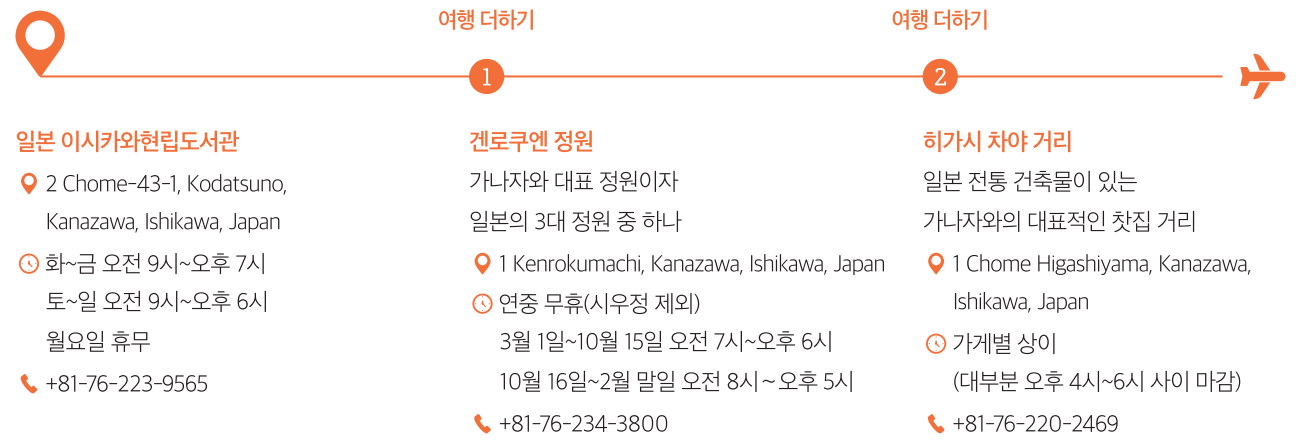
04

조차도 디자인이 다양하고 예뻐서 소장하고 싶을 정도다.

이시카와현립도서관은 도서관이 ‘지혜의 궁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잘 조합된 사례이자, 감성적 아름다움과 기능적 혁신을 모두 이룬 도서관이 아닐까 싶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술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에서 아날로그적 물성과 도서관의 본질이 완벽하게 결합하면 도서관이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그 기본의 중요성과 가치를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준 곳이었다. ㉠

03 360도 원형 건물로 도서관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이 느껴진다

04 일본 이시카와현립도서관 외관 모습이다



자연과 어우러지는 친환경도서관

글 박미숙 사진 방배숲환경도서관, 순천조례호수도서관

도서관은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운영해야 한다. 2022년 1월,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은 앞으로 도서관의 나아가야 할 바를 이야기하면서 ‘그린(친환경) 도서관’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적극 참여하는 건물과 장비를 갖춘 도서관
- 친환경적으로 일상 업무를 펼치는 도서관
- 제한적 소비와 자원순환 공유를 독려하는 도서관
- 긍정적 탄소발자국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교육하는 도서관
- 사회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도서관
-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환경 관련 정책을 세우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도서관
-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때 파리기후협약 등 환경보호 인증 프로그램들의 지침을 지키려 노력하는 도서관

우리나라에도 이런 친환경도서관을 꿈꾸며 여기저기서 활약하는 도서관들이 있다. 설계부터 착공까지 공사 모든 과정에 친환경적 요소들을 포함하여 개관한 ‘방배숲환경도서관’과 오랜 기간 시민들과 자연생태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온 ‘순천조례호수도서관’이 그곳이다.



환경과 문화로 삶을 바꾸는 방배숲환경도서관

‘새싹, 숲’, ‘잎새, 숲’, ‘열매, 숲’은 방배숲환경도서관 자료실 이름이다. 이 이름만 봐도 방배숲환경도서관이 어떤 생각으로 지어졌고 운영되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방배숲환경도서관은 2023년 6월에 문을 연 신생도서관이다. 서리풀공원 숲속에 자리 잡은 도서관으로 외부는 침표 모양으로 꾸며져 있으며, 시민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중앙정원과 옥상정원이 만들어져 있다. 또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 도서관 가구를 제작하는 등 환경개선 공법으로 지어진 도서관이다.

‘환경과 문화로 삶을 바꾸는 도서관’이 방배숲환경도서관의 비전이다. 기존 공공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의 교육문화시설 역할과 더불어 ‘친환경 생활 실천’의 장이 되겠다는 포부를 보여준다. 배우고 익히는 과정뿐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일상의 실천으로 만들어내고 그 과정을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이러한 방배숲환경도서관의 철학은 도서관 곳곳에 다양한 ‘장소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나무의 생애주기로 이름 지어진 자료실을 지나면 ‘고요한 숲’이라는 이름의 서재를 만난다. 나만의 서재에서 편안하게 독서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어진 숲’은 환경특화 공간이다. 환경 전시 및 체험 등이 가능하다.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랑받는 ‘숲의 자리’는 제로웨이스트 방식으로 운영되는 카페다.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인 ‘햇살, 딸’과 ‘구름, 딸’은 중앙



중앙정원 ‘햇살, 딸’과 옥상정원 ‘구름, 딸’

정원과 옥상정원이다. 서리풀공원을 배경 삼아 숲이 들려주는 새소리를 들으며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다. 도서관이 자연 그 자체와 어우러져 숲이 도서관이고, 도서관이 숲이라는 경험을 하도록 조성한 것이다. 약 14만 평의 서리풀 근린공원을 뒤돌 삼아 운영될 방배숲환경도서관의 푸른 행보가 기대된다.



방배숲환경도서관 종합자료실 ‘열매, 숲’



사색 및 사유의 공간 ‘고요한 숲’



순천조례호수도서관 생태자료 코너



'게릴라 가드닝' 생태활동 모습

새, 호수, 식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순천조례호수도서관

서울에 숲을 벗 삼아 거닐 수 있는 방배숲환경도서관이 있다면, 순천에는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책을 읽을 수 있는 조례호수도서관이 있다. 2010년에 문을 연 조례호수도서관은 자연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소문나 있다. 2022년에는 순천의 토종씨앗을 보존하는 활동을 하는 '순천 토종씨앗 모임'과 함께 토종 씨앗을 전시했다. 피마자, 뽕시금치, 제비콩, 납작호박 등 60여 종의 씨앗 전시를 통해 토종씨앗의 중요성과 함께 순천의 생태자원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했다.

그런가 하면 순천에서 만날 수 있는 새를 탐조하거나 그려보는 활동도 꾸준히 진행해왔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세밀화로 새를 그려보는 작가와의 만남도 진행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순천 이곳저곳을 다니며 새를 탐조하는 활동도 진행했다. 새들의 삶을 통해 순천의 생태를 새롭게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천천히 함께 읽는 환경 고전', '숲에서 놀자' 같은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책과 나무, 그리고 사람을 잇는 활동이 도서관 활동에 전반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의미다.

조례호수도서관이 펼치는 생태 활동 중 가장 인기 있는 활동은 '호수정원사'와 '게릴라 가드닝'이다. '호수정원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왔다. 호수도서관 옥상에서 직접 모종을 심고 가꾸는 것은 물론 호수도서관 주변 식물 지도를 만들었다. 내가 사는 주변의 식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게릴라 가드닝'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의 생태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활동이다. 기존 공간에 미니정원을 조성하고 가꾸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도서관의 오랜 역사만큼 생태 관련 자료도 꾸준히 모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유아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자료가 9,000여 종이 넘는다고 하니 순천조례호수도서관이 일상의 친환경 문화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알 수 있다. 조례호수도서관은 올해 좀 더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11월 26일까지 휴관을 하고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다. 새롭게 단장한 조례호수도서관이 자연·생태를 주제로 일상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무척 기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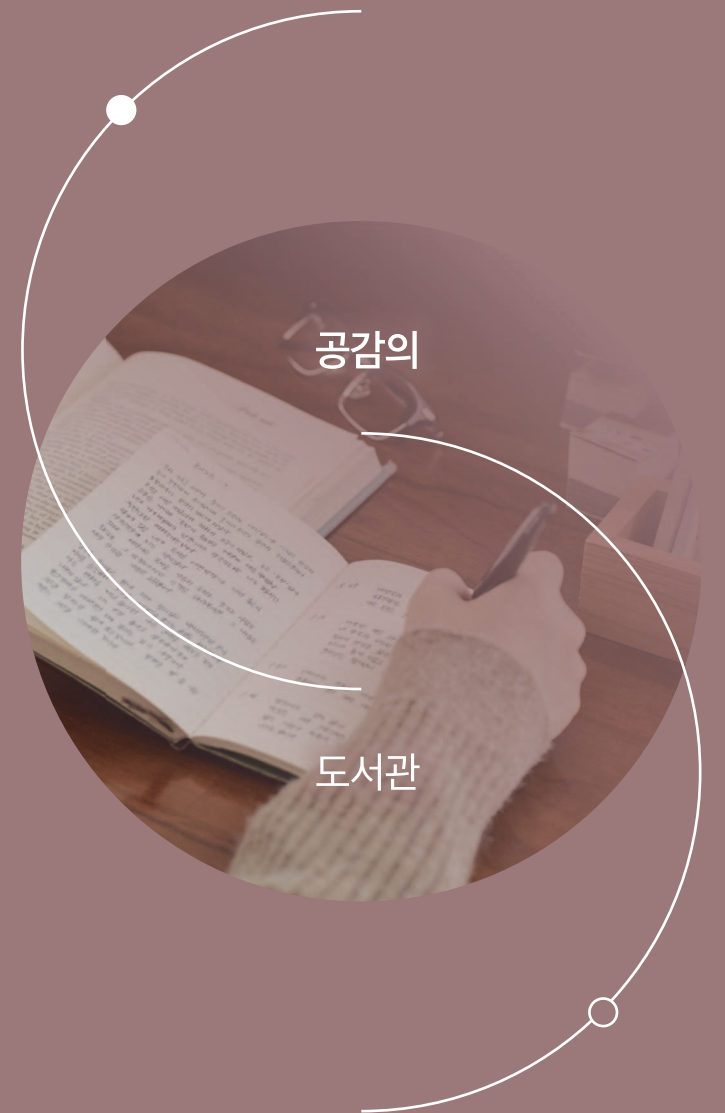
지구를 살리는 도서관

《녹색시민 구보 씨의 하루》의 저자인 존 라이언은 오래전 '지구를 살리는 일곱 가지 불가사의한 물건들' 가운데 하나를 '공공도서관'으로 꼽았다. 공공도서관의 자원 순환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였지만, 공공도서관의 친환경적 가치에 대해 새로운 고민을 던져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도서관을 친환경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시민에게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시설 자체를 친환경적 요소로 구성하고, 시민의 다양한 실천 활동을 돕는 일 이것이 '지구를 살리는 도서관'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

| 박미숙 |

고양시립 일산도서관 관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지역신문에 '그림책으로 본 세상'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연재 중이다. 저서로 《도서관에 간 외계인》, 《작은도서관이 아름답다》, 《손바느질로 만나는 그림책 주인공》 등이 있다.

공감을 펼치다



34 북데이터

시가 주는 언어의 율림
한국 시 관련 분야 대출 동향

36 오늘의 만남

컬러를 통해
나의 개성과 강점 찾기
퍼스널 이미지 브랜딩 전문가 팽정은

44 고전 드라마

주입된 유토피아,
인간성의 디스토피아
올더스 헉슬리 《멋진 신세계》

40 K-인문학

'무빙'
초능력자들의 휴머니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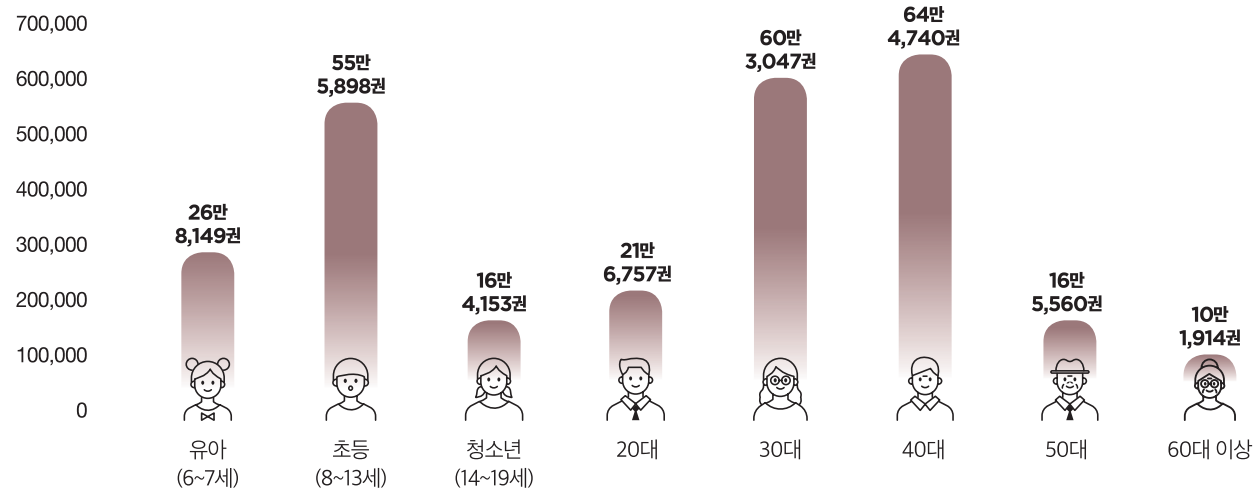
48 오감독서

각인처럼 새겨진 기억과
체취를 쫓는 것
강지영 《페로몬 부티크》

시가 주는 언어의 울림

한국 시 관련 분야 대출 동향

세대별 시집 대출량(1~100위 기준)



유아, 초등 세대별 인기대출도서

유아(6~7세)



1위

- | | | |
|----|----------|------------------------------|
| 1위 | 개구리네 한술밥 | 백석 지음 유애로 그림 보림 2010 |
| 2위 | 넉 점 반 | 윤석중 지음 이영경 그림 창비 2004 |
| 3위 | 초코파이 자전거 | 신현림 지음 홍성지 그림 비룡소 2019 |

초등(8~13세)



1위

- | | | |
|----|------------|-------------------------------|
| 1위 | 콩, 너는 죽었다 | 김용택 지음 김효은 그림 문학동네 2018 |
| 2위 | 개구리네 한술밥 | 백석 지음 유애로 그림 보림 2010 |
| 3위 | 아니, 방귀 뽀나무 | 김은영 지음 정성화 그림 사계절 2015 |

최근 1년간 세대별 시집 대출량을 살펴보면 40대가 64만 4,740권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순위를 얻었고 60대 이상이 10만 1,914권으로 가장 적었다. 유아와 초등 세대 인기대출도서를 살펴보면 《개구리네 한술밥》이 유아 1위와 초등 2위로 선정되었다. 이 시집은 백석의 동화시로 서로 돕고 사는 동물들의 모습을 한국적인 정서의 시어와 운율에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청소년, 20대, 30~40대, 50대 이상 세대별 인기대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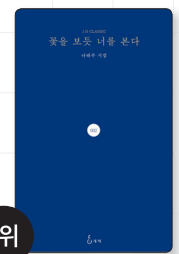
청소년(14~19세)



1위

- | | | |
|----|--------------|----------------------|
| 1위 |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 | 신경림 지음 우리교육 2013 |
| 2위 | 서울 시 | 하상욱 지음 중앙북스 2013 |
| 3위 | 꽃을 보듯 너를 본다 | 나태주 지음 지혜 20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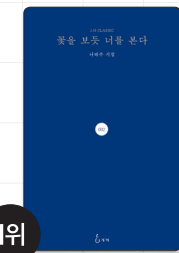
20대



1위

- | | | |
|----|----------------------|---------------------|
| 1위 | 꽃을 보듯 너를 본다 | 나태주 지음 지혜 2020 |
| 2위 |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 박준 지음 문학동네 2017 |
| 3위 |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 류시화 엮음 열림원 201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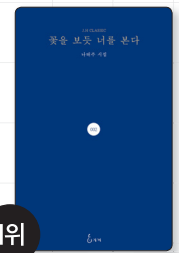
30~40대



1위

- | | | |
|----|-------------|-----------------------|
| 1위 | 꽃을 보듯 너를 본다 | 나태주 지음 지혜 2020 |
| 2위 | 시를 읽은 그대에게 | 정재찬 지음 휴머니스트 2020 |
| 3위 | 서울 시 | 하상욱 지음 중앙북스 2013 |

50대 이상



1위

- | | | |
|----|----------------------|---------------------------------|
| 1위 | 꽃을 보듯 너를 본다 | 나태주 지음 지혜 2020 |
| 2위 | 시를 읽은 그대에게 | 정재찬 지음 휴머니스트 2020 |
| 3위 |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흥가분하다 | 박경리 지음 김덕용 그림 마로니에북스 2008 |

청소년 인기대출도서는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가 1위를 차지했다. 이 책은 신경림 시인의 시선으로 22명의 시인들의 세계를 갈무리한 해설집이다. 그리고 나태주 시인의 《꽃을 보듯 너를 본다》가 2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인기대출도서 1위로 선정되었다. 전 국민의 애송시인 <풀꽃>을 포함한 대표작 다수가 수록된 이 시집은 2015년 초판 발행 이후 지금까지 시 부문 스테디셀러 1위를 기록하고 있다. ㉠

| 팽정은 |

퍼스널 컬러리스트, 퍼스널 이미지 브랜딩 컨설턴트. 퍼스널 컬러를 진단하고 이미지를 코칭해주는 브랜딩 기업의 대표로 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컬러 컨설턴트 양성 교육과 전문가 자격증 과정 등 각종 강의와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신을 브랜딩하고 싶은 이들을 위해 《인생을 바꾸는 퍼스널 컬러 이야기》를 썼다.

컬러를 통해 나의 개성과 강점 찾기 퍼스널 이미지 브랜딩 전문가 팽정은

취재 신수빈 사진 정인수

학생부터 노년층까지 남녀노소 다양한 고객에게 최고의 색을 찾아준 퍼스널 이미지 브랜딩 전문가 팽정은. 올해 그녀는 퍼스널 컬러로 나만의 이미지를 가꾸는 법을 알려주는 책을 펴냈다. 팽정은은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컬러가 있으며 퍼스널 컬러가 외적 이미지는 물론,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 컬러를 찾아 자신만의 당당한 인생을 살길 바라는 퍼스널 이미지 브랜딩 전문가 팽정은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01

〈오늘의 도서관〉 독자들에게 간단한 소개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각자 개인이 지닌 매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퍼스널 이미지 브랜딩 전문가 팽정은입니다. 퍼스널 이미지 브랜딩은 타인이 나를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는 요소인 ‘패션, 헤어, 메이크업, 표정, 매너, 바디랭귀지, 스피치’를 통해 자신다움을 만들어 드리는 일입니다. 이 요소들 중에서 시각적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컬러와 패션인데요. 컬러에서는 피부, 헤어, 눈동자 등의 타고난 색소와 어울리는 컬러를 매치하는 퍼스널 컬러를 찾아 매칭해 드리고 있고, 패션에서는 타고난 골격과 체형에 어울리는 패션스타일을 찾아드리는 일을 합니다. 한마디로 퍼스널 이미지 브랜딩은 개인의 이미지를 상징화하는 과정이고 이 상징화에 객관적인 틀을 컬러와 패션에서 찾고 있습니다.

02

퍼스널 컬러리스트의 꿈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앞으로 내가 즐겁게 잘 해낼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어떤 일이 될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영향을 주는 일, 그리고 미적인 부분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은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에게 너무 잘 어울리는 일이라며 이미지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추천해준 친구 덕분에 이미지 브랜딩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서 시각적인 장악력을 가진 컬러에 관심을 가지고 퍼스널 컬러의 마법에 빠지게 되면서 퍼스널 컬러를 대중화시키고 전파하는 데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03

이미지 브랜딩이 필수인 시대가 되었어요. 이미지 브랜딩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앞으로의 시대는 조직이 나를 대변해 주는 시대도 아니고, 수명이 길어지고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면서 개인의 브랜드화가 중요해졌습니다. 획일화된 기준보다는 가장 ‘나다운 것’을 찾아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은 개성이 되도록 만들어 개인의 가치를 제대로 어필한다면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나를 명확히 알고 목표에 맞는 전략을 통해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나의 이미지를 통합 관리해 나갈 때 개인의 이미지가 브랜드로 구축되어집니다.

04

본인의 퍼스널 컬러는 무엇이며, 또 언제 처음 알게 되셨나요?

저의 퍼스널 컬러는 모던하고 시크한 겨울쿨톤으로 어둡고 선명한 딥톤의 컬러가 잘 어울립니다. 이 분야 일을 시작하면서 알게 되었고 그 뒤로 제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유행하거나 그때그때 마음에 드는 스타일링을 했다면 지금은 저를 좀 더 전문적이고 카리스마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스타일로 통일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팽정은은 어떤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05

그동안 다양한 계층의 고객들을 만나셨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다양한 고객이 정말 많으셨지만 저를 통해 인생이 바뀌었다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모태솔로였다가 결혼에 성공하신 분, 우울감을 앓고 계시다 자존감을 찾고 재취업에 성공하신 분, 스타일을 찾지 못하고 쇼핑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시다가 깨달음을 얻고 삶이 간소화되었다는 분부터 저를 만나 자신만의 브랜딩을 깨우치고 주변 분에게 이미지 브랜딩의 필요성을 전파해주시는 분까지... 고객으로 만나 인생 친구가 되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저는 일과 사람을 동시에 얻는 행복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06

직접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에서 골격 유형을 분석한 콘텐츠가 큰 인기를 얻었어요. 콘텐츠는 어떻게 기획하시나요?

유튜브에는 평소에 제가 고객 분들을 컨설팅하거나 강의에서 진행하는 콘텐츠를 주로 영상화해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골격의 특징을 ‘스트레이트, 웨이브, 내추럴 골격’으로 카테고리화하고, 이에 어울리는 패션 스타일을 제안하는 것을 기획했습니다. 사람의 골격에 따라 어울리는 실루엣, 길이감, 소재감, 디테일, 액세서리 연출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알려드리면 유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덕분에 많은 분들이 패션스타일링의 기준을 세우기 좋다고 콘텐츠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7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에 말씀드린 외적이미지를 드러내는 7가지 요소인 ‘패션, 헤어, 메이크업, 표정, 매너, 바디랭귀지, 스피치’ 부분을 통합해서 개인을 차별화하고 브랜드화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에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쉽게 접근하시는 방법은 퍼스널 컬러 자격증을 통해 컬러로 이미지를 연출하는 일을 하는 것인데, 퍼스널 컬러만으로 사람의 전체 이미지를 관장하는 것은 당연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폭을 넓혀 퍼스널 이미지 브랜딩 자격증 과정을 만들어 이미지 브랜딩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08

신간 《인생을 바꾸는 퍼스널 컬러 이야기》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코로나19 시절에 외부활동이 줄어들면서 나 자신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마 MBTI나 퍼스널 컬러가 대유행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개인 컨설팅으로 저를 찾아 오셨었는데 이때 컨설팅을 받으셨던 출판사 이사님이 책 출간을 제안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직 저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고사하다가 지금까지 제가 해온 일들을 편하게 정리하면 된다는 말씀에 용기 내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책에는 퍼스널 컬러의 이론과 활용법, 그리고 골격분석의 이론 등을 이해하기 쉬운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컬러의 의미들이나 활용법을 담았습니다.

09

어떤 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기억에 남는 독자들의 반응, 후기도 궁금합니다.

나에게 어울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과 자존감을 올리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다양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은데



컬러의 의미와 활용법이 담긴 《인생을 바꾸는 퍼스널 컬러 이야기》



고객의 퍼스널 컬러를 진단하고 있는 팽정은

이중에 이왕이면 좀 더 쉽게 나에게 어울리는 것을 찾는다면 선택의 어려움에서 벗어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어울리는 것을 찾아 스타일링을 했을 때 주변에서 ‘예뻐졌다’, ‘좋아보인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면 자존감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독자들의 경우 실제로 나 자신을 찾게 해줘서 고맙다고 하신 분들, 자신감을 찾으셨다는 분들 그리고 저와 같은 일을 하고 싶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10

〈오늘의 도서관〉 독자들에게 집에서 쉽게 이미지 브랜딩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이미지 브랜딩의 시작은 나에 대한 관심입니다. 나의 신체의 색소와 어울리는 컬러가 무엇일까? 나에게 어울리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남들에게 보이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입을 때 가장 잘 어울릴까? 이러한 질문 등으로 스스로에게 촉을 두고 살펴보기 시작한다면 이것이 바로 이미지 브랜딩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11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이미지 브랜딩은 거창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어느 누구에게나 자신다움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파시키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퍼스널 이미지 브랜딩의 대중화를 선도하고, 더 나아가 세분화, 디테일화된 K-뷰티를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합니다. 📺

퍼스널 이미지 브랜딩 전문가 팽정은의 인터뷰 영상은 국립중앙도서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빙’ 초능력자들의 휴머니즘

글 정덕현 사진 강풀, (주)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지전능한 신은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그 무차별성으로 인해 때론 공포와 경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신은 그들의 세계에 살고 있고 그래서 인간과는 다른 존재다. 하지만 신의 아들은 다르다. 종교에서 신의 아들은, 역시 신이지만 인간의 감정을 배우고 이해한다. 그래서 뒤편 기적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 기꺼이 인간을 위해 희생하는 선택을 한다. 유수한 세월 동안 종교가 만들어낸 신과 인간의 독특한 관계는, 그 중간에 양자를 이어주는 신의 아들을 세워놓음으로써 신의 무차별성에 인간적 휴머니즘을 더해 놓는다. 이것은 이른바 판타지로 그려지는 슈퍼히어로물들이 주로 차용하는 세계다. 슈퍼히어로들은 신적인 능력을 가졌지만 신으로서 군림하지 않는다(군림하려는 이들은 주로 빌런으로 등장한다). 대신 인간을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한다. 그래서 초능력자들이 등장하는 <무빙> 같은 작품이 오히려 휴머니즘을 그리고 있다는 건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 <무빙>의 한국 냄새 물씬 나는 휴머니즘 }

강풀 웹툰 원작을 리메이크한 <무빙>이 새로운 건 여기에 한국적인 색깔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공중부양 하는 초능력을 가진 봉석(이정하)이 날고 싶어 하지만 그 능력을 숨기며 살아가는 모습은 누가 봐도 한국의 고3 학생들이 처한 무거운 현실을 떠올리게 한다. 저마다 각자의 개성을 마음껏 펼칠 나이에, 이들은 모두 똑같은 입시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 그 가능성들을 꼭꼭 누른 채 살아가고 있으니 말이다. <무빙>의 도입부에 등장하는 봉석과 희수(고윤정)의 풋풋한 청춘 로맨스도 마찬가지다. 그건 마치 한참 이성에 눈뜰 나이지만, 그것을 대입 때까지 유예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네 청소년들의 무채색 삶을 꼬집는 것처럼 느껴진다.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감을 느끼면 저도 모르게 봉봉 떠오르는 봉석이지만, 그렇게 날아오르는 걸 스스로 억압하는 모습도 그렇다. 그건 어쩌다 미래를 위한다는 이유로 현재의 행복을 억압하게 된 청소년들의 모습 그대로가 아닌가.

봉석의 부모인 김두식(조인성)과 이미현(한효주) 역시 한국에서 남다른 능력을 가진 이들이 어떻게 이용되는가 하는 그 현실을 담고 있다. 둘 다 안기부의 요원으로 그들의 특별한

능력을 발휘해 작전에 투입되곤 했지만, 그건 무고한 이들과 지 살해하는 끔찍한 일들이기도 했다. 국가를 위한다는 이유로 하는 일들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조직 내에서 권력을 잡고 유지하려는 이들의 욕망들이 담겨있다. 봉석 같은 저마다의 능력을 가진 아이들은 비정한 국가와 조직의 선택에 의해 괴물로 키워질 수 있다. 김두식이나 이미현이 그랬던 것처럼.

게다가 <무빙>은 이들이 보여주는 초능력과 그걸로 해결하는 사건들의 이야기보다, 이 초능력자들 개개인의 인간적인 서사에 집중하는데 이것도 대단히 한국적인 색깔이다. 그래서 총칼이 난무하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아주 미세한 소리를 듣거나, 칼에 맞고도 금세 회복되는 초능력자들의 액션들이 펼쳐지면서도, 이 작품은 멜로와 가족드라마 같은 장르적인 느낌을 준다. 봉석과 희수의 청춘로맨스, 김두식과 이미현의 멜로 그리고 희수의 부모인 장주원(류승룡)과 지희(곽선영)의 느와르 같은 진한 사랑이야기가 전편에 펼쳐진다. 물론 부모 자식 간의 끈끈한 가족 서사도 빠지지 않는다.



매일 아침마다 뛰어서 등교하는 희수

봉석 같은 저마다의 능력을 가진 아이들은 비정한 국가와 조직의 선택에 의해 괴물로 키워질 수 있다.



무한 재생 능력을 가진 장주원과 비행 능력을 가진 김두식

{ 신과 인간 사이 혹은 괴물과 인간 사이 }

초능력자가 부모의 권유로 자신의 능력을 숨기며 살아가다가 가족이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자 그 '본색'을 드러내는 상황은 여러모로 슈퍼맨을 재해석한 잭 스나이더 감독의 〈맨 오브 스틸〉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우주에서 날아와 지구에 똑 떨어진 이 신적 존재에게 인간의 감정을 가르치고 이해시키는 건 바로 그가 지구에서 만나게 된 부모들이다. 어느 날 이 아이가 자신과는 다른 능력을 가졌다는 걸 알게 된 부모는 그에게 그 능력을 숨기라고 가르치고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이로써 그는 봉석처럼 중력을 거스르며 날아오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지만 인간적 삶을 이해하게 된다. 그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신이거나 괴물이다. 하지만 그가 인간과는 다른 중력으로 살아가면서도 인간을 포기하지 않게 된 건 그에게 따뜻한 손을 내민 부모나 연인 때문이다. 그의 연인 로이스 레인은 그에게 '슈퍼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 방점은 '슈퍼'가 아닌 '맨'에 찍혀있다. 능력은 슈퍼급이지만 '인간'이라는 것이다.

이로써 그는 봉석처럼 중력을 거스르며 날아오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지만 이로써 인간적 삶을 이해하게 된다.

{ 인간적인 면모와 능력에 대한 욕망 }

〈무빙〉의 초능력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들 역시 인간과는 다른 능력을 갖고 있고 또 그 능력을 이용하려는 자들로 인해 괴물의 삶을 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는 건 다름 아닌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준 따뜻한 사람들이다. 재생 회복 능력을 가진 장주원이 가진 건 '지나치게' 튼튼한 몸뚱어리 하나로 먹고 살기 위해 조직에 몸담았다가 처절히 배반당하고, 또 그 능력을 알아본 국가기관에 의해 이용당하면서도 끝내 버텨낼 수 있었던 건 사랑하는 사람 지희가 옆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가족, 연인들의 사랑 속에서 인간적인 면모를 잃지 않는다.

사실 초능력 같은 판타지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인간은 중력을 거스를 수 없고, 한계 이상의 고통이나 상처를 견딜 수 없으며, 초감각을 가질 수도 없다. 그러니 판타지를 통해서라도 이러한 초능력을 상상해보는 것이리라. 하지만 그러한 능력들에 대한 욕망만큼 더 중요한 건 그 욕망의 지향이라는 걸 〈무빙〉 같은 무수한 슈퍼히어로물들은 보여주고 있다. 초능력자들의 휴머니즘이라는 어딘가 아이러니한 서사는 그래서 신과 인간의 관계를 '신의 아들'이라는 존재로 인간애에 대한 지향점을 주려 했던 그 본태적인 요소를 그대로 담고 있다. ㉠

※ 콘텐츠 내용은 드라마 〈무빙〉의 줄거리를 포함하며, 원작 웹툰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정덕현 |

대중문화평론가이자 칼럼니스트. 각종 방송 활동, 강연 등을 통해 대중문화가 가진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 있고, 백상예술대상, 대한민국 예술상 심사위원이다. 저서로 《드라마 속 대사 한 마디가 가슴을 후벼팠 때가 있다》, 《다큐처럼 일하고 예능처럼 신나게》 등이 있다.

인간은 중력을 거스를 수 없고, 한계 이상의 고통이나 상처를 견딜 수 없으며, 초감각을 가질 수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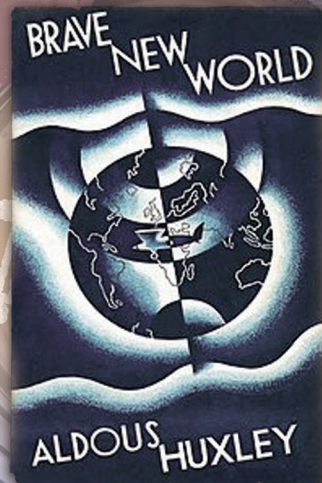


아버지 김두식의 비행 능력과 어머니 이미현의 초감각 능력을 물려받은 아들 봉석

주입된 유토피아, 인간성의 디스토피아

올더스 헉슬리 《멋진 신세계》

글 김규범 사진 위키미디어



Brave
New World

SCANNING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제작된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2023)>는 아파트라는 소재를 이용해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를 영리하게 교차시킨 재난영화입니다. 시점,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작가 '올더스 헉슬리(Aldous Huxley, 1894~1963)'의 1932년 작 소설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는 과학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미래를 소재로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를 교차시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한 세상", "태어날 때부터 할 일이 정해져 있고, 외로움도 불안도 근심도 없는 세상", "누구와도 자유롭게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책임질 일이 생기지 않는 세상"

<멋진 신세계>가 그려낸 미래는 '유토피아'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럼에도 이 작품은 '조지 오웰'의 《1984(1949)》, '에브게니 자마틴'의 《우리들(1924)》과 함께 '세계 3대 디스토피아 소설'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토피아'를 그린 작품이 '디스토피아' 소설로 불리게 된 이유를 함께 알아봅시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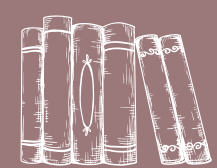
대전쟁을 겪은 이후 세상은
문명이 도입된 '멋진 신세계'와
기술과 문명이 도입되지 않은
'야만인 보호구역'으로 나뉜다.



#2



야만인 보호구역에서 태어난 존은
문학작품을 통해 사상을 다져가며
그곳에서 성장한다.



#3

존은 어머니를 통해 문명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틈틈이 전해듣게 되고,
문명 세계를 '멋진 신세계'라 부르며
동경하게 된다.



#4



어느 날, 문명 세계의 사람인 버나드가
야만인 보호구역을 찾아왔다.
존은 어머니와 함께 그토록 동경하던
'멋진 신세계'로 향하게 되는데...



문명인과 야만인 그 사이

- 인물관계도 -

주인공

존

야만인 보호구역 출신.
문명 세계를 동경하다가
버나드를 만나면서
신세계를 경험하게 된다.

린다

존의 어머니.
문명 세계의 여성이지만
우연히 야만인 보호구역으로
여행을 갔다가 고립된다.

야만인 보호구역

John



모자
관계

Linda



문명 세계

Bernard



Mustapha Mond



버나드

문명 세계의 사람.
국가가 금지하는 것들을
즐기고 야만인 보호구역에
다녀오며 문제를 일으킨다.

무스타마 몬드

문명 세계의 지도자.
세계 통제관들 중 한 사람으로
최고로 높은 계급에 속한다.

작품 읽기 준비운동 세계관 알아보기

세계관 설명이 꼭 필요한 작품이라면 《멋진 신세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작가가 만들어낸 미래세계를 한 조각씩 떼어내 알아보려면 굉장히 넓은 영역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미리 알고 읽으면 도움이 될 설정 10가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1. 대전쟁을 겪고 난 세상에는 ‘세계정부’가 들어섰습니다.
2. 모든 인간은 인공 수정으로 태어납니다.
3.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고, 태어나기 전부터 삶이 결정됩니다.
4. 사람들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으로 나뉘어 사회적 신분(계급)을 가집니다.

5. 모든 인류는 태아 시절부터 자신의 계급에 맞는 세뇌 수준의 교육을 받습니다.
6. 성욕은 가상현실을 통해 자유롭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7. 실제 육체관계는 추잡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교육받습니다.
8. 국가가 지급하는 ‘소마’라는 일종의 마약을 통해 행복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9. 이 세계를 고안한 ‘헨리 포드’라는 인물은 신적 존재로 받아들여집니다.
10. ‘멋진 신세계’인 세상과 전혀 다른 ‘인간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야만족이 공존합니다.

줄거리 알아보기 ‘존’을 중심으로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멋진 신세계라 일컬어지는 ‘문명 세계’와 아직 기술과 문명이 도입되지 않은 ‘야만인 보호구역’입니다. 문명 세계의 여성 ‘린다’는 인공 부화소장인 ‘토마스’와 야만인 보호구역으로 여행을 갔다가 사고를 당해 홀로 낙오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문명 세계에서 추잡한 것이라 여기는 실제 육체관계를 통해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야만인 보호구역에 정착해 아들을 낳았고, 남자들의 성적 노리개로 살면서 자신이 살던 문명사회를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존’은 어머니의 출신과는 별개로 야만인 보호구역에서 태어났기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었고, 셰익스피어 등의 문학작품을 통해 상상을 다져가며 성장합니다. 그런 존에게 어머니 린다는 문명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틈틈이 들려주었고, 덕분에 존은 문명 세계를 ‘멋진 신세계’라 부르며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존은 우연한 계기로 야만인 보호구역을 답사하던 문명 세계인 ‘버나드’를 만나게 되었고, 어머니 린다와 함께 그토록 동경하던 ‘멋진 신세계’로 향하게 됩니다. 문명 세계에 도착한 존은 ‘야만인의 손에서 길러진 문명세계인’이라며 주목받기 시작했고, 어머니 린다는 그동안 야만인 보호구역에서 겪은 고통을 잊기 위해 행복을 느끼는 약 ‘소마(일종의 마약)’에 의존해 살아갑니다. 존은 문명 세계에 도착한 김에 그동안 동경했던 것들을 하나씩 경험해봅니다. 그렇지만 그가 느낀 것은 만족이 아닌 실망뿐입니다.

비인간적인 사회, 인간적 가치보다는

통제가 우선되는 사회, 외부에서 오는 쾌락에
맹목적으로 지배당하는 사람들...

존은 결국 충격으로 외부와 단절하고 늘 읽어오던 셰익스피어 전집만을 탐닉하기에 이릅니다. 갑작스럽게 돌변한 존의 모습에 문명 세계인들은 “야만인 주제에 우리와의 만남을 거절했다”라며 불쾌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 린다가 소마 과잉섭취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죽음에 대한 애도조차 없는 문명 세계인들의 태도에 분노한 존은 난동을 부리다가 체포되어 문명 세계의 지도자인 ‘총통 무스타마 몬드’를 만나 설전을 벌이게 됩니다. 두 사람은 인간성, 사랑, 비극, 인문학적 소산 등 작품의 절정이라 할 수 있을 만한

깊이 있는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렇지만 총통과의 대화 끝에 존이 느낀 것은 문명 세계에 대한 회의였습니다. 결국 존은 외딴곳으로 떠나 혼자 모든 것을 일구며 살기로 합니다. 하지만 문명 세계인들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구름처럼 몰려들어 그를 구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을 쫓아내려 저항하던 존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주입된 유토피아, 인간성의 디스토피아

작품의 제목 ‘Brave New World(멋진 신세계)’는 영국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1564~1616)’의 희곡 《템페스트(The Tempest)》의 한 구절을 인용해 만들어졌습니다. 《템페스트》의 등장인물인 ‘미란다’는 동생에게 국가를 빼앗기고 추방당한 공작 ‘프로스페로’의 딸로 아버지와 함께 외딴 섬에 살던 중 난파선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고 “아름답다(Brave New World=중세 영어 기준으로 ‘Brave’는 ‘멋진’, ‘아름다움’이라는 의미)”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버지를 추방했던 사람들이었죠. 존이 야만인 보호구역에서 문명 세계인 버나드를 만나는 순간이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템페스트》의 이런 구성을 계승한 《멋진 신세계》는 문명 비판적 어조로 쓰인 풍자와 역설의 작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모두가 예외 없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진 사회, “행복하라”라는 축복과도 같은 명령을 받아 불행과 결핍 없이 모두가 행복한 ‘멋진 신세계’, 하지만 이러한 행복이 학습되고 주입된 것이라면, 우리는 이곳을 진정 ‘멋진 신세계’라 부를 수 있을까요? 작가는 단지 인간답게 살기를 원했던 인물 존의 입을 빌려 이렇게 답합니다. “난 안락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신을 원하고, 시를 원하고, 참된 위험을 원하고, 자유를 원하고, 선을 원합니다. 나는 죄악을 원합니다.” ❶

김규범

독서라는 대화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아서 책을 읽고 책을 소개하고 감상을 나누는 공간인 유튜브 채널 ‘사월이네 북리뷰’를 운영하고 있다. 직장인을 위한 고전 안내서 《고전의 고전》을 집필했다.

각인처럼 새겨진 기억과 체취를 쫓는 것

강지영 《페로몬 부티크》

글 신수빈(부운디자인)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후각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이건 과연 축복일까, 불행일까. 저주라고 느껴질 만큼 어떤 냄새든 한 번 말으면 절대 잊지 않는 마성의 후각을 지닌 한 남성이 있다. 조향사이기도 한 그는 연쇄살인범을 잡기 위해 경찰과 기이한 공조를 시작하는데... 중독성 있는 플롯으로 장르를 넘나드는 미스터리 소설 속으로 빠져본다.



《페로몬 부티크》

강지영 지음 | 씨네21북스 | 2018



경찰들과 천재 조향사의 기이한 공조

소설은 이야기의 긴장감 정도를 향수의 잔향에 비유해 1부 톱 노트, 2부 미들 노트, 3부 베이스 노트로 나누어 중독성 강한 스토리텔링을 그대로 보여준다. 1부에서는 세 명의 주인공이 등장한다. 일말의 체취만으로도 그 사람의 과거까지 맞추는 조향사 타신, 남자친구가 살해당한 9년 전 그날을 파헤치기 위해 최면술로 기억을 쫓는 열혈경찰 재경, 그리고 재경의 상사이자 표적수사대 팀장인 두현이다. 재경의 남자친구인 인석의 후견인이었던 두현은 인석을 살해한 놈과 지금 표적수사대가 쫓고 있는 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 동일인일 거라 확신했고, 천재적인 후각 능력자인 타신에게 공조를 의뢰한다. 또 한 번의 잔혹한 연쇄살인사건이 벌어지면서 타신과 재경의 첫 만남이 이뤄진다.

범인은 늘 미래를 위해 현재를 투자하는
가난한 청년들을 타깃으로 삼았다.
범인은 가여운 청춘들에게 저항흔을
남기지 않으려고 순식간에 제압하는 동시에
손목을 케이블 타이로 묶었다.
그리고 직접 준비한 노끈 따위를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완전히 숨이 끊어지면 피살자가
마지막으로 읽던 책에서 찢어낸 종이를
입에 구겨 넣는 것이 범행의 일관된 특징이었다.
- 《페로몬 부티크》 중에서 -

타신은 향수를 사러온 고객이 풍기는 샴푸와 화장품 냄새, 하물며 목덜미에서 나는 냄새로 그 고객이 불륜을 저지른 20대 여성임을 단번에 파악할 정도로 뛰어난 후각을

가졌다. 재경은 예민한 타신 때문에 그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비누로 머리를 감는 등 불편함을 겪어야 했지만, 지문 한 점, 머리카락 한 올 남지 않은 미궁의 수험생 연쇄살인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선 타신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처음엔 타신의 능력을 믿지 않던 재경은 그가 발휘하는 놀라운 추리 능력에 그를 신뢰하게 되고, 타신 또한 재경이 겪은 끔찍한 사건을 이해하고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된다.

2부에서는 7차 연쇄살인사건이 터지고 타신과 재경, 두현은 사건이 일어난 고시원에서 범인에 대한 단서를 찾기 시작한다. 타신은 살인현장에서 날씨가 어울리지 않는 모피 냄새를 맡는다. 고시원 방을 드나든 사람은 감식팀 네 명과 팀원 다섯 명, 그리고 관할 순경 두 명이었다. 즉, 사망자 한 명과 사후 출입자 열한 명, 그리고 범인까지 13명의 체취가 있어야 하는데 타신이 맡은 체취는 정확히 열두 명이었다. 재밌게도 범인의 체취는 느껴지지 않은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타신의 가게 단골손님이자 인플루언서인 '이매력'의 도움으로 범인이 모피로 장식된 호화로운 키홀더를 쓰는 부유한 남성임을 유추해낸다. 이들은 범인이 나타난 파티현장에서 잠복을 시도하지만, 끝내 범인을 놓치고 만다. 어느 추리소설과 달리, 이 소설에선 중간에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진다. 범인은 호텔 직원에게 받은 모피 키홀더를 손에 쥔 채 운전대를 잡고 유유히 파티현장을 벗어나간다.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





수험생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을 찾아서

재경은 첫 최면술을 받았을 때 범인의 키가 180은 훌쩍 넘고 어깨가 넓고 단단한 체구에 검정색 캡 모자를 쓰고 검정색 긴팔 티셔츠에 블랙진을 입은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놈의 얼굴만은 알아볼 수 없었다. 용기를 내 몇 번 더 최면술을 받은 재경은 차츰 범인의 실체에 한 발짝 다가선다. 인석의 친형이 '볼베르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던 추리소설 작가였고, 볼베르크의 유품 중 사라진 제본 서적을 찾다 그가 범인의 지시로 '악마의 자서전'을 집필했으며 범인에게 죽음을 당하기 전 아버지와 함께 자살한 사실을 밝혀낸다. 3부는 '악마의 자서전'의 기묘한 서문으로 시작된다.

악마와의 인터뷰를 마치고 나는 깨달았다.

놈은 자신의 구역질나는 생을

전리품처럼 기록하고 싶었다는 걸.

자신의 비루한 글솜씨로는

불가능 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를 대필 작가로 고용했지만,

그의 비밀이 새어나오기 전에 읽은 자의

눈을 빼고 들은 자의 귀를 자르리라는 걸.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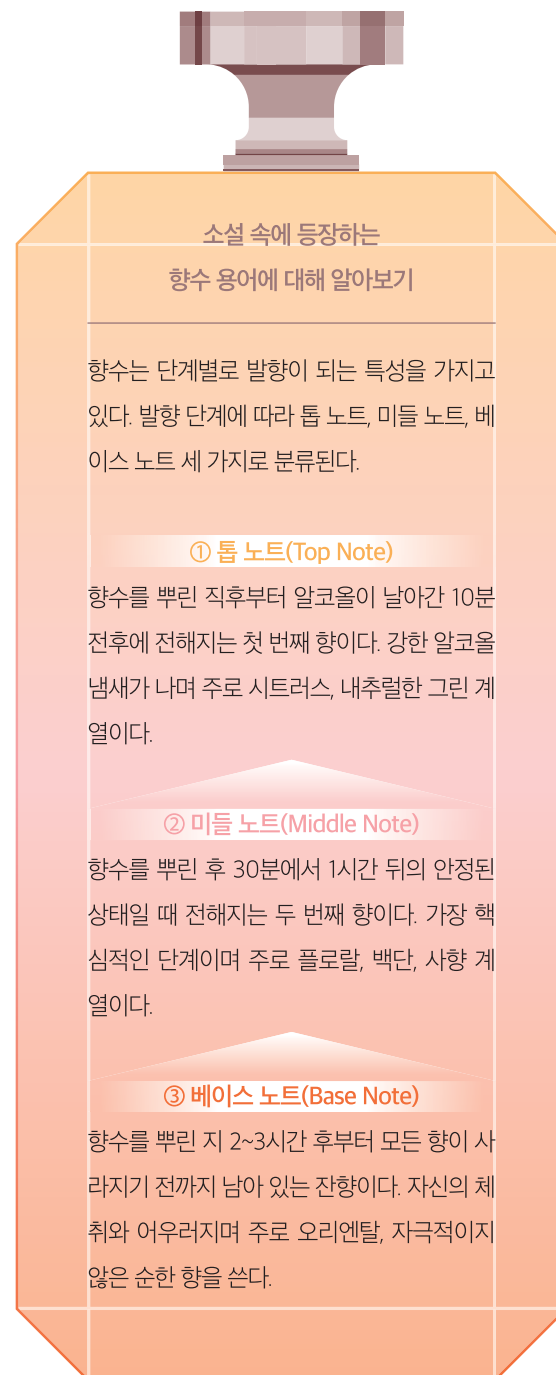
목숨을 대가로 한 악마의 자서전을 시작한다.

- 《페로몬 부티크》중에서 -

살인사건을 추리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타신의 후각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남들이 말지 못하는 아주 세밀한 냄새까지 억지로 말아야 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타신은 본인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조향사로 단골손님들을 끌어 모은다. 다만 '왜 천재적인 후각 능력을 지닌 타신이 범인의 체취만 말지 못했을까?' 이 의문은 후반부에 풀리게 되고, 이 책을 읽은 독자는 분명 깨우침에 스스로 놀랄 것이다.

흡사 드라마와 영화를 보는 것처럼 끝까지 책을 놓을 수 없게 만드는 흡입력이야말로 이 소설의 매력이 아닐까. 열혈 경찰 재경과 두현, 그리고 마성의 후각을 지닌 타신은 미국의 연쇄살인범을 붙잡을 수 있을까. 소설은 사건의 한복판에 뛰어들어 각양각색 인물들의 활약과 촘촘한 개연성으로 진짜 두뇌싸움을 원하는 독자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살인사건을 풀어가는 타신, 재경, 두현 이 세 사람의 복잡 미묘한 삼각관계 또한 극의 흐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절묘한 밸런스를 보이며 극을 더욱 쫄깃하게 만든다. 로맨스와 추리의 결합이 주는 신선한 즐거움이다. ❷



함께 나누다

오늘의

도서관

52 국립중앙도서관 소식

56 국내외 도서관 소식

58 내 마음의 문장들
2023년 여덟 번째 필사
윤동주 <코스모스>

59 오늘의 사진관
완연한 가을,
나만의 도서관은 어디인가요?

국립중앙도서관

NEWS

01

2024년도 국립중앙도서관 예산
951억 원 정부안 편성

국립중앙도서관은 2024년도 예산 정부안을 951억 원으로 편성하였다. 주요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 K-콘텐츠 수집 및 보존 지원: 예산 1억 5,000만 원을 정부안에 편성하여, 소멸하기 쉬운 온라인 자료의 적시 수집 및 영구 보존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K-콘텐츠의 국가지식자원화를 통한 후대전승과 함께 국가중요콘텐츠의 영구적 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리안 메모리 콘텐츠 구축·서비스 활성화: '24년 신규로 예산 4억 5,000만 원이 정부안에 편성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동 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기관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전시·심포지엄·워크숍 등을 통한 홍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애인 보행환경·편의시설 강화: 신규로 예산 2억 원을 편성하였다. 사업내용에는 장애인 주차장, 도서관 출입구 경사로 등의 보행환경 개선과 음성안내 제공 키패드(키오스크) 및 장애인 전용 열람석 설치 등 편의시설 개선 사항이 포함된다.

학교·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독서활동 지원 확대: 주요대상은 소년보호기관 청소년 및 수용자의 자녀이며, 해당 청소년이 또래 집단 수준으로 문해력을 키워 원만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독서문화 프로그램 및 진로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예산이다. '23년 5,900만 원에서 '24년 5억 1,90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국립세종도서관 이동식 서가 전자장치 교체: 국립세종도서관에서는 '24년까지 이용빈도가 높은 3개의 서고 전자장치를 우선 교체할 예정이며, 향후 남은 서고도 교체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23년 1억 9,000만 원에서 '24년 3억 7,70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 기획총괄과 02-590-0529

02

제17회 도서관 혁신 아이디어 및 우수
현장사례 공모전 수상작 8편 선정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7회 도서관 혁신 아이디어 및 우수 현장사례' 공모전을 개최하고, 인천광역시 율목도서관의 특화사업인 '나를 더 나답게 바른생활 독서루틴 만들기, 독서트라이애슬론' 운영사례 등 총 8편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초개인화 시대,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를 주제로 한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의 사서, 도서관·문화기관 종사자,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총 37편의 아이디어와 현장사례들을 응모했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율목도서관의 독서트라이애슬론은 철인 3종 경기인 트라이애슬론을 독서와 접목시킨 독서루틴 형성 챌린지 프로그램으로, 대상을 세분화하여 독서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특강, 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챌린지, 리워드 제공의 3단계 과정으로 21일 동안 운영된다.

우수상 2편에는 도서관을 거점으로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과학특화서비스를 운영한 인천광역시 수봉도서관의 '과학, 과해도 괜찮아! 사이브러리(SCIENCE+LIBRARY)'와 전주 시 도서관본부의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 운영사례인 '책의 도시를 여행하다, 전주 도서관 여행'이 각각 선정되었으며, 장려상에는 대전석교초등학교의 '생명애(愛) 책으로 심.폐.소.생 프로젝트: 테마가 숨 쉬는 학교도서관' 등 5편이 선정되었다. 최우수상과 우수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장려상에는 국립중앙도서관장상을 각 상금과 함께 수여한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https://nl.go.kr>) > 도서관 소개 > 도서관 소식 > 공지공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상식은 10월 13일(금) 국립중앙도서관 78주년 개관 기념행사에서 개최된다.

☎ 기획총괄과 02-590-0799

03

'K-도서관', 영국에 한국문화 매력 전파



국립중앙도서관은 올해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이해 8월 25일(금), 영국 셰필드대학교(University of Sheffield)에 한국자료실(WOK, Window On Korea)을 개관했다. 개관 행사에는 김일한 국립중앙도서관장 직무대리, 안나 클레멘츠(Anna Clements) 셰필드대학교 도서관장, 선승혜 주영한국문화원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07년부터 한국자료실 사업을 통해 아시아, 유럽, 중남미, 중동 등 28개국 주요 도서관에 한국자료실을 설치하였으며 약 13만 책의 한국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한국문화 매력 전파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에 설치된 셰필드대학교 한국자료실은 전 세계 33번째로 문을 여는 것으로, 약 150m² 면적에 국립중앙도서관이 제공하는 한국 역사, 문화, 언어 관련 자료 등 2,878책(점)이 배가된다. 또한 자료실 벽면에는 전 세계 한류 붐을 이끌고 있는 K-pop과 K-culture 발전사를 소개하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셰필드대학교는 영국에서 연구를 선도하는 24개 명문대학으로 구성된 러셀 그룹(Russell Group)의 회원으로 건축학, 문헌정보학 등에 강세를 보이는 대학이다. 1979년부터 한국어와 한국학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며 한국어사, 한국현대사회, 한국전통문화와 같은 한국어 이외의 과목들을 특화하여 교육하는 등 영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한국학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셰필드대학교는 이번 한국자료실 개관으로 한국학 관련 학술자료와 전용 공간이 확보되어 한국학 연구 진흥 및 체계적인 한국문화 홍보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 국제교류홍보팀 02-590-6327

04

국립중앙도서관,
부산에서 2023년 사서한마당 워크숍 개최



국립중앙도서관은 9월 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양일간 부산 해운대센트럴호텔에서 '2023년도 사서한마당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올해 10주년을 맞은 이번 사서한마당 워크숍에는 강동구립천호도서관 등 77기관 111명 사서들이 참가, 전국 도서관 현장의 사례를 공유하고,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었다.

사서한마당 주요행사로 진행된 '2023 국립중앙도서관 사서한마당 연계 영상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우수작 총 5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등을 수여했다. 수상작은 지난 6월 1일(목)부터 7월 24일(월)까지 접수된 총 27편 작품 중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워크숍 현장에서의 투표를 통해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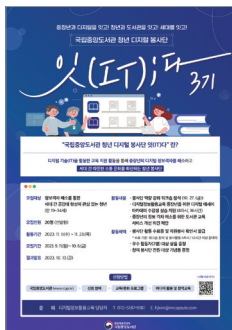
최고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은 △강북문화정보도서관(홍예은 팀)이 선정되었고, 우수상인 국립중앙도서관장상은 공모분야별로 △교육과정 연계 현장 사례 분야에 안성시중앙도서관, △도서 홍보 영상(북트레일러) 분야에 제주도서관(강지희 팀), △사서의 경험과 보람을 주제로 한 분야는 강동구립천호도서관(박혜연 팀), △어린이청소년서비스 우수사례 분야에 그림숲그림책작은도서관(김소연)이 선정되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총 300만 원 상당의 부상이 수여되었다. 올해 선정된 수상작은 향후 사서교육을 위한 홍보와 교육에 활용될 예정이다.

☎ 도서관인재개발과 02-590-0553

국립중앙도서관

NEWS

05

국립중앙도서관 청년 디지털 봉사단
‘잇(IT)다’ 3기 모집 안내

국립중앙도서관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지원 봉사활동을 통해 중장년의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세대 간 따뜻한 소통 문화를 확산하는 청년 디지털 봉사단 ‘잇(IT)다’ 3기를 모집한다. ‘잇(IT)다’는 디지털 기술(IT)를 활용한 교육 지원 활동을 통해 중장년의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세대 간 따뜻한 소통 문화를 확산하는 청년 봉사단이다.

지원대상은 중장년의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세대 간 공감대 형성에 관심 있는 청년(만 19~34세), PC, 노트북을 활용한 인터넷 및 클라우드 활용이 가능한 청년, 오프라인 행사 참석 및 교육 지원이 가능한 청년이며, 11월 1일(수)부터 23일(목)까지 활동하게 된다. 주요활동은 효과적인 봉사단 활동 수행을 위한 1일 역량 강화 워크숍 참석(10월 27일(금)), 「중장년을 위한 디지털 에세이 아카데미」 교육 실습 지원(총 8차시/16시간), 중장년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 교육 서비스 개선 의견 제언(1회/서면 제출)이다.

활동에 참여한 청년에게는 봉사단 활동 수료증 및 자원봉사확인서 발급, 우수 활동자(2명) 대상 상품 증정, 참여 봉사단 전원 대상 기념품 증정 등의 활동혜택이 주어진다. 모집인원은 총 20명이며 9월 11일(월)부터 10월 6일(금)까지 모집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nl.go.kr) > 신청·참여 > 교육/문화프로그램 > 미디어 활용 및 창작 교육 메뉴에서 신청 가능하다. 합격자 발표일은 10월 13일(금)로 도서관 누리집 공지사항 게시 및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 지식정보서비스과 02-3483-8847

06

전국 도서관을 하나로, 책이음서비스
전국 2,602개 관 참여·536만 회원 등록

국립중앙도서관은 책이음서비스 14주년을 맞이하여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책이음서비스는 국민들이 하나의 도서관 이용증으로 전국 책이음 참여도서관 이용 및 도서 대출이 가능한 도서관협력서비스로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2010년 부산·인천지역 50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2023년 7월 말 기준으로 서울 520개 관, 경기 454개 관, 경남 276개 관 등 전국 2,602개 도서관이 책이음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종별로는 공공도서관 1,163개 관, 작은도서관 1,415개 관, 전문도서관 15개 관, 초·중·고 도서관 8개 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책이음 회원은 총 536만 명으로, 시도별로 부산 103만 명, 경기 83만 명, 인천 78만 명 등의 순서로 가입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다양한데, 그 중 30대 여성(12.8%)과 40대 남성(10.9%)의 비중이 높았으며, 성별로는 여성(57.2%)이 남성(42.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책이음 회원이 그동안 대출한 건수는 약 2억 7,500만 건으로, 대출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0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19년 대비 29.5% 감소했으나, 2021년부터 대출 건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한편 책이음 회원이 가장 많이 대출한 도서는 손원평 작가의 장편소설인 《아몬드》로 약 9만 2,000회 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마법천자문》, 《수학도둑》 등 아동서가 상위 도서 대출 건수의 80%를 차지하였다.

☎ 정보기술기반과 02-3483-8877

07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23년 제3회
‘부모를 위한 독서문화 강좌’ 개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9월 13일(수), 2023년 제3회 ‘부모를 위한 독서문화 강좌’를 도서관 누리집(www.nlcy.go.kr)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올해는 ‘문해력 증진의 씨앗을 독서를 통해 키운다’를 주제로 어린이·청소년 문해력 증진을 위한 독서지도와 자녀 교육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제1회 강의는 신중호 교수의 ‘독서와 문해, 그리고 생각하는 힘’이며 제2회 강의는 김아미 교수의 ‘어린이·청소년의 온라인 삶’으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세 번째 강연을 맡은 박영혜 강사는 ‘문해력의 씨앗, 독서’라는 제목으로 문해력은 ‘세상을 읽는 능력’임을 강조하며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 독서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능동적인 꺼내기식 독서와 수동적인 집어넣기식 독서의 비교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독서 습관을 갖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고 가장 쉬운 배움의 방법이 독서임을 강연했다.

박영혜 강사는 서울용동초등학교 사서교사로 재직 중이며, 《초등 학교도서관 활용수업》, 《한 학기 한 권 무엇을 읽을까》,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등을 공동 저술하였다.

이번 강연을 통해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독서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아이들이 능동적인 독서습관을 기르는데 필요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보서비스과 02-3413-4817

08

국립세종도서관,
야외조각전(展) 개최

종이곰(남형돈 조각가)

국립세종도서관은 세종조각가협회와 함께 8월 28일(월)부터 9월 25일(월)까지 도서관 야외 녹지공간에서 조각 전시를 개최하였다. ‘소풍’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조각으로 표현한 세종조각가협회의 다채롭고 특색 있는 작품 10여 점을 만나볼 수 있었다.

국립세종도서관 이민석 관장은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이들이 함께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작품들로 전시를 준비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야외 공간에서 조각 전시도 감상하며 더위는 잊고 예술문화를 누리는 기쁨을 오래오래 간직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세종조각가협회는 세종 지역 조각가들이 함께 문화예술 기반을 구축하고 서로 간의 교류를 통해 작가들의 예술역량을 고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 국립세종도서관 기획관리과 044-900-9022



국내 도서관

NEWS

01

2022년 공공도서관 방문 이용 회복,
온라인서비스 이용 성장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도서관협회와 함께 '2023년 전국 공공도서관 통계조사(2022년 실적 기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공공도서관을 방문한 이용자는 1억 7,500만 명, 독서·문화 프로그램 참가자는 2,500만 명으로, '21년 대비 20% 이상 증가해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공공도서관 이용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도서관 누리집은 연간 8억 2,900만 건 이상 접속을 보여 전년보다 17.3% 늘고, 전자자료 수도 51.9% 증가해 코로나시기를 계기로 확대된 온라인서비스는 성장세를 보였다. 이번 통계조사 결과는 공공도서관이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 제약 상황을 상당 부분 회복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03

광주시립점자도서관,
남구 사동에 개관



시각장애인의 정보습득과 문화생활·평생교육을 돕기 위해 광주시립점자도서관이 지난 8월, 문을 열었다. 광주광역시 남구 사동에 개관한 광주시립점자도서관은 지상 4층(414.43㎡) 규모로 책마중 공간, 어린이열람실, 서고, 대면 낭독과 점자자료 제작을 위한 녹음실, 점자 인쇄실, 다목적실 등을 갖추었다. 일반도서와 전문서적 등의 자료를 점자와 음성으로 변환한 도서를 제공하며 열람과 대출도 가능하다. 특히 점역교정사, 사서, 사회복지사 등 점자도서관에 맞는 전문 인력이 시각장애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02

서울도서관, 국제도서관협회연맹
'친환경 도서관상' 수상



서울시는 서울도서관이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이 주관하는 '친환경 도서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서울도서관은 8월 22일(화),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개최된 '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서 캐나다 웨스트밴쿠버 기념도서관(West Vancouver Memorial Library)과 이탈리아 빌라 발레 시립도서관(Biblioteca Civica Villa Valle)에 이어 3위로 이상을 받았다. 국내 2만 1,000여 개 도서관을 통틀어 IFLA가 수여하는 상을 받은 건 서울도서관이 처음이다. 공공 야외도서관으로 조성한 '책읽는 서울광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04

증평군, 20분 거리 내집 앞 도서관
도시 조성



충북 증평군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조성하는 창의파크에 도서관을 짓기로 결정하였다. 증평읍 창동리 옛 개나리아파트 터에는 내년까지 도시재생사업으로 개나리어울림센터에 도서관을 만든다. 이들 공립도서관이 조성되면 △송산권 증평군립도서관 △원도심권 증평교육도서관 △동남권 창의파크도서관 △서남권 개나리도서관 등 생활권별 내 집 앞 공립도서관이 만들어진다. 증평군은 도서관 접근성을 높여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20분 생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외 도서관

NEWS

01

IFLA/시스트매틱, 2023년도
'올해의 공공도서관상' 수상자 발표



올해 최고의 신축 공공도서관은 스페인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케즈 도서관(Biblioteca Gabriel García Márquez)'이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자리한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케즈 도서관은 책을 펼쳐 쌓아놓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건축학적으로만이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경이로운 이 도서관은 24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에게 공동체의 중심과 같은 역할을 하며,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진행된 IFLA 세계도서관정보대회에서 2023년도 올해의 공공도서관으로 선정되었다.

03

미국박물관도서관서비스협회(IMLS), 원주민
공동체 도서관 서비스에 570만 달러 제공

미국박물관도서관서비스협회(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IMLS)는 지난 8월 24일(목) 미국 본토 원주민, 알래스카 원주민 그리고 하와이 원주민 단체들의 도서관 서비스를 지원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세 프로그램에 총 576만 3,000 달러의 기금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원주민 도서관서비스 지원기금(Native American Library Services Enhancement Grants)'은 미국 원주민 공동체가 공동체 내의 핵심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돕는다. 지원기금은 동일 연도에 미국 원주민 도서관 서비스 기초기금을 신청한 신청자에 한해 제공된다. 향후 제공되는 기금에 대한 정보는 IMLS 웹사이트(www.ims.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

미국 인디애나폴리스공공도서관
포트 밴 분관, 자폐친화기관 인증 취득

인디애나폴리스 공공도서관 포트 밴 분관이 '인지장애 교육 및 인증기관인 국제 자격심사 및 평생교육 표준 위원회(International Board of Credentialing and Continuing Education Standards, IBCCES)'로부터 인디애나주 최초로 자폐친화기관 인증(Certified Autism Center™)을 받았다. 이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 포트 밴 분관의 직원들은 자폐장애인과 기타 감각이 예민한 사람들의 교육, 행동, 정서 및 사회적 욕구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교육을 이수했다. 이 분관은 또한 도서관 내의 여러 구역에 대한 감각 친화적 지침을 만드는 등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IBCCES로부터 현장점검을 받았다.

04

영국 책 읽는 어린이청소년 비율
20년 만에 최저치 기록

영국리터러시트러스트(National Literacy Trust) 재단은 지난 9월, 8세부터 18세까지 어린이청소년 중 단 44%만이 여가시간에 독서를 한다는 최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재단이 2005년부터 어린이청소년 설문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며, 2016년도와 비교했을 때 15.2%p 하락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재단은 아이들의 성공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가정에서 책 읽는 문화를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아이들이 역할 모델로부터 지지를 받고, 자신의 모습이 반영된 책들이 주위에 있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이 있을 때 책을 읽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내 마음의 문장들

가을꽃 하면 코스모스가 떠오릅니다.
청초한 코스모스를 옛 소녀에 빗대어
마음을 전하는 시가 있습니다.
코스모스가 가득 핀 정원에서
부끄러워지는 마음을 따라 시 한 편,
천천히 따라 쓰고 음미해보세요.
2023년 10월 함께 필사해 볼 시는
윤동주 시인의
〈코스모스〉입니다.

청초한 코스모스는

오직 하나인 나의 아가씨

달빛이 싸늘히 추운 밤이면

옛 소녀가 못 견디게 그리워

코스모스 핀 정원으로 찾아간다

코스모스는

귀뚜리 울음에도 수줍어지고

코스모스 앞에 선 나는

어렸을 적처럼 부끄러워지나니

내 마음은 코스모스의 마음이요

코스모스의 마음은 내 마음이다

- 윤동주 〈코스모스〉 전문 -

완연한 가을, 나만의 도서관은 어디인가요?

가을이 오롯이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예쁜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10월은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는 달입니다.
가을 정취를 듬뿍 느끼며 책과 함께
마음의 양식을 쌓아보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 나만의 특별한
도서관을 소개해주세요.

9월호 당첨자 사연을 소개합니다!

01

독서의 달, 나만의 도서관은

(푸켓)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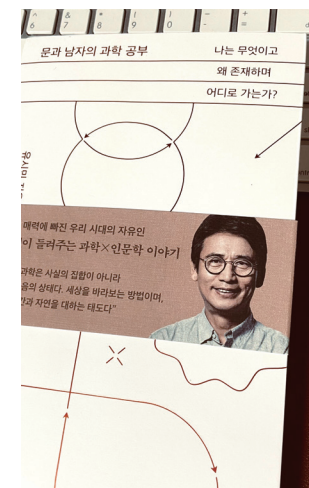
푸켓으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
다. 멋진 휴양지가 나만의 도서
관이 되어 무척 기쁩니다. 이곳
에서 장강명 작가님의 《5년 만
에 신혼여행》이라는 신혼여행
에 관련한 에세이를 읽었습니
다. 화창한 날씨에 선 베드에 편
안히 누워서 좋아하는 책을 읽
으니, 더욱 공감이 많이 되었답
니다. 덕분에 힐링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영 님

02

독서의 달, 나만의 도서관은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이다.



저는 유시민 작가님의 《문과 남
자의 과학 공부》를 읽었습니다.
어려운 지식을 쉽게 풀어서 알
려주고 싶은 작가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덕분에 세상은
넓고, 재미있고 신기한 것들이
많은 곳이며, 뭔가를 조금 더 알
게 되는 것이 조금 더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최○영 님

완연한 가을, 나만의 도서관은

()이다.

QR코드 링크로 접속해
내가 오늘 읽은 책과 짧은 감상평을
사진과 함께 인증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10분께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바로가기

